8 2024 VOL. 338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재인도네시아한인회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The all-new KONA Electric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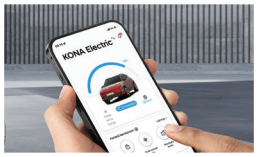
Your future playground.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99 Jutaan* 부터

※ 자카르타 기준, 전기차 부가가치세 1% 혜택 적용.

*지역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대 블루링크
(커넥티드 카 서비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실내 V2L

완충 시 최대 600km 이상 주행
(Prime Long Range, NEDC 기준)

프론트 트렁크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21-2595-5095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www.hyundai.com

HYUNDAI

Call Center 0 800 1 878 878 (24 jam & bebas pulsa) Hyundai Motors Indonesia @hyundaimotorindonesia Hyundai Motors Indonesia @hyundaimotorid @hyundaimotorindonesia

한인 뉴스

월간 한인뉴스 8 2024

표지 사진 :

장소: Sumba섬 Bendungan Waikelo Sawah
일시: 2024년 6월 29일
제공: 류완수(자카르타 거주)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아군도 적군도 없는 인도네시아 정치”

8
[김재훈의 ‘세무 TALK’]
2024 재산세(PBB) 할인규정

10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16
[여기가 맛집]
Cimory Riverside 〈황지영〉

19
[디카시 풍경]
채송화 마음 〈김주명〉

contents

2024. 8. 통권 338호

20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2]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4
[인터뷰2.0]
월드옥타차세대 손현목대표

30
[서상영의 한방칼럼 16]
3대 노인질환 4. 고독사

35
월드옥타차세대 화합의 밤 행사 성료

36
[자카르타의 아침]
골프 스윙을 잘하는 방법-빈스윙 연습
〈손상현〉

39
JIKS 소식

42
전북 타임즈& 즈빠라 한인회MOU

44
[행복에세이]
가치있는 삶에 대하여
〈서미숙〉

46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바다를 선물하세요"
〈김별님〉

50
[칼럼] "인도네시아는 도끼다"
〈조연숙〉

54
이달의 시사상식

56
[반려동물 랜선집사]
재휘네 집에 송이꽃이 피었습니다 〈이재휘〉

56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8
〈신성철〉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6)
불법행위(2)
〈이승민〉

68
생활정보

"아군도 적군도 없는 인도네시아 정치"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인 대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하거나 심지어 사석에서 자기 의견을 밝힌 후에도 맺음말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면 용서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Mohon maaf jika ada kata kata yang kurang berkenan dan terima kasih atas perhatiannya)라고 말한다. 인도네시아사람의 이 말 속에는 이 곳 사람들만의 사회 · 문화는 물론 정치적인 큰 의미를 내포한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대선을 위한 TV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에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인사말과 제스처로 서로에게 예의를 다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다시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남겨둔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3명의 대선 후보 모두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루꾼'(rukun, 화합)이다. 루꾼은 인도네시아 정치와 경제, 사회 · 문화의 저변에 깔려 있는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이곳 사람들은 가급적 직설법을 피하고 에둘러 얘기한다. 갈등을 외부적으로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내면과 외면이 일치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루꾼은 우리가 생각하는 표리부동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각에서 인도네시아 정치와 외교를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심지어 부조리해 보이기도 한다. 외교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친구처럼 지낸다.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외교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와 평화주의를 추구하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대국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이웃에 둔 한국과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와는 매우 다르다.

이를 위해 영국의 역사학자 월터스(O. W. Wolters)의 만달라(Mandala)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월터스는 고대 동남아시아의 국가시스템을 만달라체제라고 규정했다. 월터스는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에서 동심원 또는 방사형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만달라에서 용어를 차용했다. 만달라는 영토를 중심으로 중국과 같이 지배자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국가체제가 아닌 지배자를 정점으로 동심원 형태이다. 즉 만달라 체제는 지배자를 중심 지역으로 주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느슨한 지배구조이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선명하지만 물결은 점차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중심은 있고 경계나 울타리가 희미한 것과 같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금과 노역을 바친다.

고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선 영토라는 개념이 미약하고 세습되는 절대 왕권도 없었다. 다만 만달라 내에서 강한 중심세력이 등장하면 동심원 구조가 이동하는 권력 형태를 보였다.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면 정복전쟁이 아닌 새로운 세력으로 중심이 이동한다. 고대 7~11세기까지 인도네시아 군도의 수마트라섬 빨렘방을 중심으로 수마트라섬 말레이반도와 자바섬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위세를 떨쳤던 스리위자야(Sriwijaya) 제국에서 자바의 마자빠힛(Majahpahit,13~16세기)제국을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한 역사적 사실은 만달라체제를 설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왕조 구축'이 도마위에 올랐다. 3선 도전이 불가능한 조코위 대통령 장남인 기브란 솔로 시장의 부통령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왕조 논란은 비단 조코위 대통령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장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 가문과 수하르토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가문도 빼놓을 수 없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도 가문정치를 세력화하고 있다. 최근 프라보워 당선인은 조카 토마스 지완도노를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며 정치세력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10년 동안 정치권력이 유도요노 가문을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로 세력이 형성됐다면 조코위 대통령의 집권 10년은 메가와티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계는 프라보워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만달라세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치는 정당정치가 아닌 인물정치로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정당이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정당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반면 인물정치는 개인의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개인의 카리스마와 인지도 등을 활용하여 지지를 얻고 정권을 장악하는 게 특징이다. 정당정치와 인물정치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정치 시스템이 더 좋은지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정치는 정책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만, 관료주의와 당리당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인물정치는 빠른 의사 결정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불안정성과 독단적인 의사 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프라보워가 이끄는 새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한다. 인도네시아 정계의 만달라 정치세력은 어떻게 작동할 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올해 11월 주지사와 시 · 군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당선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조코위 대통령의 막내아들 까에상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대표가 주지사로 출마할 예정이며 사위 보비 나수띠온이 역시 주지사로 출마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차기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조코위 가문을 지지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차기 부통령 기브란과 행정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 지 관전포인트다. 하나 더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누산타라 신수도 이전 메가 프로젝트와 청소년 무상급식은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하다. <끝>

2024년 재산세(PBB) 할인 규정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PBB-P2 는 Pajak Bumi dan Bangunan Pedesaan dan Perkotaan 으로 농촌 및 도시의 토지 및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농업, 임업 및 광업 사업활동을 제외한 농촌 및 도시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통제 또는 활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건물 보유세라고 할 수 있다. PBB-P2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 버카시, 땅그랑에 대한 2024년 PBB-2P 규정을 살펴보자.

1. 자카르타 재산세(PBB) 감면 규정 :

작년에 이어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자카르타 주지사령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공표하였다.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PBB를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PBB를 납부하면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의 PBB 연체금에 대해서도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PBB 연체금을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월까지 납부하면 PBB 원금의 10% 경감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4년부터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5% 경감 혜택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https://pajakonline.jakarta.go.id/esppt/input 에 접속해서 고지서를

Download 받아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출력되지는 않는다. 출력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QR code 를 scan 하여 QRIS 로 납부할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그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조건이 충족될 경우 PBB 100%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자카르타 주지사령 16/2024호(Peraturan Gubernur DKI Jakarta 16/2024) 제 7조 1항을 규정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2. Kota Bekasi 재산세(PBB) 감면 규정 :

Bekasi 시 Gani Muhamadi 시장 대행은 인도네시아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PBB-P2)를 조기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한시적으로 지방세 연체에 대한 벌과금 등 행정제도를 철폐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우선 재산세 (PBB-P2) 인센티브는, 2024년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는데, 2024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납부할 경우 원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2024년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경우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금 등에 대한 행정 제재도 철폐한다. 2024년 과세연도까지 PBB-P2,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광고세와 지하수세에 적용되며,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음식 및/또는 음료에 대한 지방세, 숙박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주차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예술 및 오락서비스에 대한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3. Tanggerang PBB 규정

땅그랑은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제도는 현재까지 규정되지 않았다. 2024년 재산세(PBB-P2)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4. 기타 지역

PBB-P2 는 각 지역별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끝>

2024 년 7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자카르타 외국인 선호 주택 임대료 상승... 아파트 수요도 증가"

자카르타 주택시장의 외국인은 주로 단독으로 부임하는 아시아인들

올 상반기 자카르타 외국인 주택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부동산 컨설팅회사 콜리어스 레지던셜(Colliers Residential)이 2024년 상반기 보고서(7월11일 발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았고, 특히 인도인, 한국인, 중국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인들도 다시 자카르타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업, 은행업, 제약, 컨설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매니저(managerial positions)부터 중역급(directorial positions)까지 직책을 수행한다.

최근 자카르타에 오는 외국인들은 주로 가족 없이 독신으로 부임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들 중 90%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택한다. 이러한 추세는 팬데믹 이후 기업의 주택 임대료 예산이 동결되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임대 지역은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디르만 상업중심지역(SCBD)과 자녀들의 학교가 가까이 있는 찔란닥, 찌뻐떼, 뽄독인다 등 남부자카르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들은 자국 커뮤니티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무실이 자카르타 외곽에 있을 경우에 뽄독인다 지역과 같은 남부 자카르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와 시설에 대해, 외국인들은 신축이고, 현대적이면서 미니멀한 디자인, 그리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갖춘 주택을 선호한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미 임대가격을 인상

외국인 유입으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임대료 상승 조짐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팬데믹으로 지난 수년 간 임대료가 정체되거나 하락한 상태인 만큼 시장 가격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주택 소유자들은 지금이 임대료를 인상할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다.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그리고 집수리 등 임차인의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임대료를 올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23년 이후 외국인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료를 5~10% 인상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15~30%까지 올랐다.

콜리어스는 이제 외국인 주택 임대시장은 수요가 많은 시기에 집주인이 주도하고 있다며 외국인 고객에게 임대 계약을 갱실할 때 임대료 인상에 대비하라고 귀뜸했다.

세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 협상을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인상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임대료를 선지불하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고, 동시에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고용주, 체류 기간 및 회사가

고용한 외국인의 수까지도 고려해서 임대료 협상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주택 수당 예산을 줄였고 아직 이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대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임차인들은 개인 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대략 80% 정도의 외국인이 예산에 맞춰 다른 주택을 찾는 선택을 한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현재 임대료 조정은 새로운 인상이 아니라 원래 임대료를 복원하는 데 더 가깝다. 임대료 조정이 시작됐고, 지불 방법도 팬데믹 이전 방식으로 돌아갔다. 임차인은 임대 갱신과 신규 임대 모두에 대해 2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일부 집주인은 여전히 1년 단위로 지불하는 방식도 수용한다.

아파트 수요 증가세

지금도 주재원들은 주민 편의시설과 철저한 보안을 갖춘 전용단지 내 주택을 가장 선호한다. 가족을 동반한 다국적 기업의 직원들은 잘 알려진 주거단지 내 주택을 선호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내 주택 임대료는 높은 수요로 인해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는 Pakubuwono Residence, Pakubuwono Signature, Botanica, District 8 및 Pondok Indah Residence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서 실제로 빈 집을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집주인이 제시하는 임대료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다른 아파트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즉 앞서 언급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여전히 선택의 폭이 넓다.

콜리어스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주택 임대시장에 외국인의 활동이 아직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올 하반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외국인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니, 불법 수입품 감독 위해 경찰·검찰 참여한 태스크포스 꾸린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수입품 범람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포함된 전담 조직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TF)를 구성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줄끼풀리 하산 무역장관은 지난 17일 경찰과 검찰이 포함된 불법 수입품을 관리 · 감독할 태스크포스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끼풀리 장관은 "불법 수입품 범람에 대응해 강력한 법집행을 시행할 것"이라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지원을 받아 태스크포스가 가까운 시일 안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무역부가 불법수입품과의 전쟁을 위한 내부 전담팀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며, 법집행 기관이 참여하는 새로 구성될 테스크포스는 불법수입업자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성될 태스크포스는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 및 인니상공회의소(Kadin) 등 경제 단체들의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상공회의소는 저가의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류, 철강, 직물 등 수입품에 대해 200% 수입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정책 제안을 했고, 정부 당국은 세이프가드(Safeguard)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스리 물야니, 차기 내각 합류 불확실성으로 증시 침체

프라보워 수비안토 차기 정부에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의 입각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주(7/15~19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의 거래액과 거래량이 5% 이상 감소하고 시가총액이 1% 가까이 감소하는 등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18일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의 조카이자 그의 재정 정책 고문인 토마스 지완도노를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게 일정 부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필라르마스 인베스트인도 증권이 분석했다.

지완도노 차관을 임명함에 따라 국가 살림을 책임지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이 차기 정부에서 입각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시행 계획은 정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월 대선에서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공약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완도노를 조코위 정부에서 차관으로 우선 임명했다. 지완도노는 오는 10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정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필라르마스 증권은 이어 글로벌 시장 추세를 반영하여 아시아 주가 지수가 하락한 것도 IDX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수입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나선 것이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평가했다.

7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IDX 거래액이 8.23% 감소해 전주 거래액 10조 4600억 루피아에서 9조 6000억 루피아로 떨어졌다. 일평균 거래 건수도 109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8.12% 감소했다. 또한 일평균 거래량은 174억1000만주에서 164억8800만주로 5.3% 감소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0.96% 감소하여 전주의 12,478조 루피아에 비해 12,358조 루피아로 감소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JCI)도 전주 마감지수 7,327.5에서 7,294.4로 0.45% 하락했다.

"8월 17일부터 보조금 석유제품 판매 제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예산에서 석유제품의 연료보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17일부터 보조금이 포함된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자격을 갖춘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연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7일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오는 9월 1일 공청회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보조금연료의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소비자 구매력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행을 미뤘다고 17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지난 7월 9일 "보조금연료가 정확하게 수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이갈 수 있도록 보조금연료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라며 "국영 에너지회사 뻐르따미나(PERTAMINA)가 보조금연료 수혜 대상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루피아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면서, 석유 보조금이 국가예산에 배정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2022년부터 보조금연료의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보조금연료 판매 관리 방안 중 하나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인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등록하게 한 후 보

조금연료를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연료 구매 제한으로 연료 구매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 계획을 연기해 왔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수입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에탄올을 섞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팜오일을 에탄올 생산에 사용할 경우 식용유를 위한 팜오일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니 투자장관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이 독점하지 않아"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장관이 자국의 FDI는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직접투자 국가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니켈광산, 태양광 등 대규모 사업을 시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바흐릴 장관은 지난 7월 11일 서부자바주 자띠낭오르 지역에 있는 행정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언급한다. 특히 가짜뉴스가 흔하게 돌고 있는 왓츠앱(Whatsapp) 그룹채팅방에서 이 같은 얘기가 유통된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FDI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투자국에 대해 포용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바흐릴은 "(외국인 투자가) 특정 국가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싱가포르가 최근 5년동안 투자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3년에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총 154억 달러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24년 1분기에 4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이 싱가포르를 금융 허브로 생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투자 금액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 기업인의 투자금이다"라고 덧붙였다.
바흐릴에 따르면 대인도네시아 투자에 있어서 중국과 홍콩은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2023년 중국 투자액은 총 74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홍콩이 65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에는 홍콩이 중국을 약 2만 달러가량 앞섰다.
이외에도 네덜란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약 12억 달러와 13억 달러를 투자해 8위를 차지했다. 스위스는 2021년에 약 5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도 2023년 순위에서 6위(33억 달러)로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미국 투자가 총 11억 달러에 달해 4위로 올라섰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1분기 동안 국내외 투자 합산에서 249억달러(401조5천억루피아)를 유치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올해 목표로 삼은 1,650조루피아의 24.3%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중국산 주요 상품들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도 중국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정치, 사회>

발리서 헬리콥터 연줄에 감겨 추락… 5명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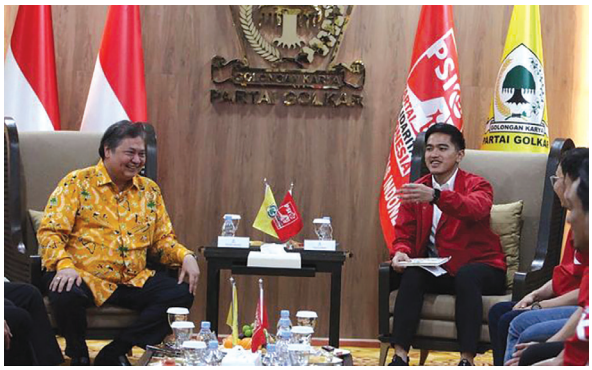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9일 비행 중이던 헬리콥터가 연줄에 감기면서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해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이 크게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고 현장에 파견된 교통국 항공국 관계자에 따르면 화이트스카이항공(Whitesky Aviation) 소속 관광용 헬리콥터(기종: PK-WSP Bell 505)가 발리 남부 꾸따 지역에서 연줄에 감기면서 추락해 조종사와 승객 등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스카이항공사측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인과 호주인 등 관광객 4명이 탑승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지난 2008년 5월 발리 따나롯에서 사누르 해변으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연줄에 감기면서 추락할 뻔한 위기상황을 맞았다. 기종 Bell 206-Cal Ser 사고 헬리콥터는 프로펠러 축에 연줄이 감기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자, 발리 주도 덴빠사르 시내 학교운동장에 불시착했다.

골까르 "까에상,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하면 러닝메이트로 지원"



골까르당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막내아들 까에상 빵아렙이 오는 11월 자카르타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러닝메이트로 자당 후보 내세워 협력할 것이라고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골까르당 대표가 11일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총선에서 15.29%의 득표율을 보여 투쟁민주당(PDIP)에 이어 2위 정당에 오른 골까르당의 아이르랑가 당대표는 까에상을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지지하며, 그의 러닝메이트로 자당의 유숩 함까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유숩은 자카르타의 주요 아젠다인 인프라 개발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르랑가는 자카르타 골카르당 중앙당사에서 까에상을 만난 자리에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도시로서 자카르타는 세계의 다른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카르타 후보 등록 마감일이 아직 두 달이 남은만큼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당선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까에상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대표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 총재의 딸인 뿌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및 조코위 정부를 비판해온 무슬림 기반의 번영정의당(PKS) 간부들과도 회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사 웅굴 대학교의 자말루딘 리똥아 정치전문가는 골까르당 내에 리드완 까밀 등 자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아이르랑가 당대표가 까에상을 지지하는 등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신수도 누산타라, 독립기념일에 맞춰 계획대로 완공”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념일 행사를 수도 자카르타가 아닌 동부칼리만탄에 건설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IKN)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이 프로젝트를 시공하고 있는 국영건설사 아디까르야(PT Adhi Karya Tbk) 사장이 “계획 대로 완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지난 7월 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다르면 엔뚜스 아스나위 아디까르야 사장은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과 고위급 관계자들과 함께 누산타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에릭 장관과 수행원들은 대통령궁, 고속도로, 50메가와트 태양광 패널 프로젝트 등을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장관 관저, 가스파이프설비, 통신 인프라 및 인도네시아축구협회(PSSI) 훈련센터도 점검했다.

엔뚜스 사장은 “축구협회 훈련센터가 천연 및 인공 잔디운동장, 기숙사, 부대 시설 등 현재 공정률이 99.6% 진행되고 있다”며 “8월 17일 독립기념일까지 장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저를 마련하는 등 목표한 대로 누산타라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여기가 맛집!

Cimory Riverside

황지영(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8월을 맞이했네요. 한국은 찜통더위가 절정일테죠. 자카르타도 물론 일년내내 덥지만 한국의 8월은 습하기까지 해서 온 국민이 찜통의 만두가 된 것만 같습니다. 자카르타의 8월은 아직 우기가 아니라 습도는 한국보다 덜해서 자카르타의 더위가 천사처럼 느껴만 집니다. 하하. 휴가의 달 8월에 모두 어떤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바캉스 떠나는, 그리운 한국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8월이 성수기를 많아 멀리 떠나지 못하시는 아쉬운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무더위를 피해 자카르타 근교로 떠나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Puncak Bogor은 자카르타에서 고속도로를 타면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산지대라 한국의 늦여름이나 가을 정도로 선선해서 저도 더위를 피하려 주말에 자주 가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이 곳에서의 조그만 즐길 거리와 식당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imory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유제품 회사인데요. 아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자주 사 먹는 요거트나 우유가 거의 Cimory 제품이라 다들 사진을 보면 익숙할 겁니다.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Cimory Dairyland가 있는데요. 작은 체험 동물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와 말 등에게 먹이 주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조경도 잘 꾸며져 있어서 사진 찍기도 좋으실 겁니다. 승마체험도 있고 앵무새, 뱀, 도마뱀을 만지고 사진촬영도 가능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둘러보는 데 천천히 둘러봐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다른 테마파크처럼 시간도 그렇게 빼앗기지 않고 다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모님들. 하하. 자카르타 사람들이 주말에 자주 더위를 피하러 뿐짝, 보고르에 가기 때문에 주말에 차가 무지막지하게 밀려요. (금요일 2 PM부터 주말 또는 공휴일 Puncak 노선에서는 홀수 짝수 시행)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Cimory Dairyland 둘러보시고 배고프고 허기질 점심쯤이 되면 옆에 Cimory Riverside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계곡을 끼고 있는 식당인데요. 계곡 뷰에서 먹는 능이 백숙은 저희에게 익숙하지만 계곡 뷰에서 먹는 인도네시아 현지식 및 양식은 새로운 느낌인데요. 계곡물소리도 들리고 특히 밤에 가면 조명도 예뻐서 분위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리의 퀄리티도 그렇고 메뉴도 한국의 휴게소 느낌이 강하지만 그래도 휴게소 밥맛은 나쁘지 않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요리 소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Tahu Tarik (32,000 루피아 ++)입니다. 인도네시아식 튀긴 두부인데요. 다들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튀긴 두부 안에 속 재료가 있어서 약간 만두 같지만 겉의 피는 보들보들 만두인 그런 느낌입니다. 겉은 튀겨서 바삭하고 중간은 두부로 보들보들, 안에 속재료는 짭조름만 만두 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 않나요? 메인 요리와 곁들이기 좋은 메뉴인 것 같아서 소개 드립니다. 밥 안 먹는 아이들도 간식처럼 먹기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Nasi Goreng Sosis (47,200 루피아 ++)입니다. 소시지와 함께 나오는 나시고랭입니다.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볶음밥입니다. 일반 나시고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시지가 들어간 다는 것인데요. 네덜란드 영향으로 뿐짝 보고르 쪽에 네덜란드식 요리가 발전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뿐짝에 와서 어떤 식당들의 소시지를 먹어봐도 맛있더라고요. 소시지 볶음밥 어른부터 아이까지 불호가 없는 메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Dori Fish and Chips (63,000루피아 ++)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튀긴 요리가 많아서 그런지 식당에서 피시 앤 칩스를 많이 팔더라고요. 튀긴 요리의 강국 답게 바삭하게 잘 튀겨냅니다. 안에 생선 살 또한 비린 맛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바삭한 피시 앤 칩스를 새콤달콤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드셔 보세요. 사실 맥주가 절로 찾아지는 맛입니다. 저녁에 가시면 분위기도 좋아서 맥주 한 잔에 안주로 곁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제공되는 감자튀김도 있으니 맥주, 어떻게 참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Zuppa Chicken Cream Soup (62,000루피아 ++)입니다. 치킨 크림스프 위에 페스츄리 같은 빵이 올라갑니다. 위에 빵을 그대로 스프에 담그고 부셔서 먹는 요리인데요. Zuppa란 곡류가 많이 들어간 이탈리아식 스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소한 맛이 있는 편이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크리미한 점도보다는 덜 꾸덕꾸덕한 스프였습니다. 고소한 맛과 치킨스톡 특유의 짭조름한 조미료 맛이 식전 식욕을 아주 돋우어서 애피타이저 요리로 제격 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요리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무엇보다 놀러 왔다는 분위기가 나는 식당이라서 좋았습니다. 맛도 평균 정도라서 가성비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참! Cimory에 왔으니 신선한 우유 Fresh Milk Plain (15,500루피아 ++) 또는 요거트와 같은 다른 유제품 Blueberry Yogurt Blend (34,500루피아 ++) 들도 꼭 시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당 옆쪽에 기념품 가게에 우유, 치즈, 요거트, 빵 등과 같은 찌모리 유제품들도 팔고 있으니 돌아가실 때 왕창 쇼핑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바캉스의 계절! 바쁘다면 근교라도 가셔서 오랜만에 찾아온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 채워 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숨을 돌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9월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 정보 : <Cimory Riverside>

음식 종류 : 양식 및 인도네시아 현지식
가 격 대 : Rp 100,000-2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08:00- 오후09:00
주 소 : Jl. Raya Puncak - Gadog KM.77 No.435
Leuwimalang, Kecamatan Cisarua
Kabupaten Bogor
Jawa Barat 16770 인도네시아

※ Google 참고

채송화 마음

꽃은 이렇게 피는 것이다

나,

예쁘다고

솔직하게

이미지: 채송화, 인흥마을에서
글: 김주명

배동선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2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제4장 자바전쟁의 시작

세상의 모든 왕가들이 그렇듯 어린 술탄 뒤에서 실권을 쥐려는 왕족들과 정치가들은 섭정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민심도 흉흉해지면서 하멍꾸부워노 5세의 즉위 직후인 1822년 왕가를 비난하는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술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네덜란드 관리들의 전횡도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을 함부로 드나들던 그들이 궁전 안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궁 안에서 일하는 여인들이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당시의 관념으로는 술탄의 여인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왕실에 속한 여인들, 심하게 말해 왕실의 재산이었으므로, 이민족이 궁에 들어와 궁안의 여인들과 함부로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끄라톤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마땅할 술탄이 아무 것도 모르는 세 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벌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족, 귀족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스캔들이 터지고 부패와 독직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왕가의 비옥한 토지가 대단위로 유럽인들이나 중국인들에게 임대되면서 가중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끄라톤이 외면으로 일관하자 민초들의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각종 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백성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 갔는데 도시와 성읍 관문들의 운명권마저 중국인들에게 넘어가자 자바의 백성들은 길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통행세를 뜯겨야 했습니다. 민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만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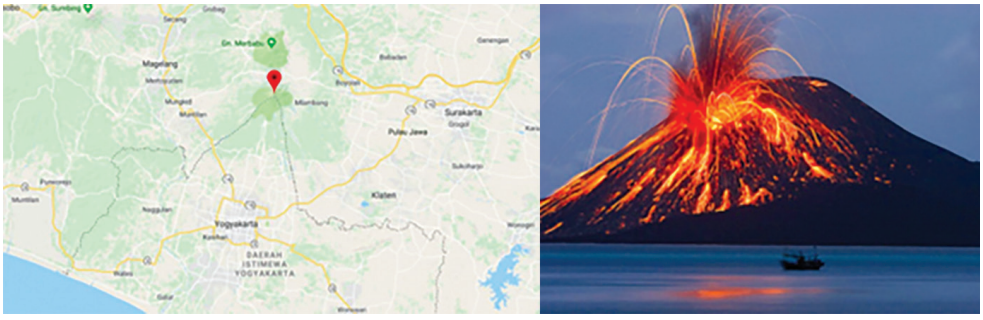
디포네고로 왕자는 술탄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에 참여해 어린 술탄을 보위하고 왕정을 바로 세우려 했으나 끄라톤의 실권은 이미 다누레조와 네덜란드 총독부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자바의 왕가를 쥐락펴락 하면서 게걸스러운 탐욕으로 왕국의 이권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있었죠. 나폴레옹 전쟁으로 국가 역량의 대부분을 소모한 후였으므로 네덜란드는 당면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식민지 전체에서 강력한 조세정책을 시행했고 사업과 판매의 독점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자바와 수마트라 전역도 예외가 아니었고 세 살짜리 술탄이 다스리는 족자 왕국이야말로 가장 만만

자바의 중국인들
https://nusantara.news

한 밥그릇이었겠죠. 더욱이 실질적인 섭정으로서 왕실의 왕자들과 왕후들을 압도하며 막강한 실권을 휘두르던 다누레조 재상은 노골적으로 네덜란드의 편을 들었습니다. 가혹한 조세정책과 네덜란드의 독점행위가 왕실의 무력감, 다누레조 재상의 부패와 맞물려,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고 있던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목을 더욱 졸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822년 머라삐 화산(Gunung Merapi)이 폭발하고 1824년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자바섬엔 더욱 큰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고 민중들은 물밑에서 네덜란드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던 디포네고로에게 은연 중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관료들과 현지 영주들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아무 댓가 없이 노동력을 차출당해야 했던 농부들은 자신의 논을 경작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고, 그 와중에도 인상되어 버린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그나마의 소득도 국가에 모두 빼앗겼습니다. 기아선상에 내몰린 그들의 원성은 당연히 드높았습니다. 한편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총독부가 토지임대권을 독점해 자신들이 직접 토지임대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로 인한 기회이익의 상실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귀족들은 민중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빼앗긴 이권 때문에 네덜란드에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도는 매우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귀족들과 백성들 모두 네덜란드의 게걸스러움에 반감을 품게 된 것이죠.



족자에서 멀지 않은 머라삐 화산
http://www.mixanitouxronou.gr

동인도인들이 맨 가마 위에 올라탄 네덜란드인들

"디포네고로 왕자님이 어쩌면 자야바야 예언서가 말한 라투 아딜(Ratu Adil)의 현신인지도 몰라!"

자야바야의 예언 (배경의 문자는 자바어 알파벳)

쁘라렘방 자야바야(Pralembang Jayabaya) 예언서란 분열되어 있던 12세기의 중부 자바 끄디리(Kediri) 왕국을 재통일한 자야바야 대왕의 예언을 담은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자야바야가 힌두신 비슈누의 환생이라고 했다죠. 그 예언의 골자는 세상이 혼돈과 불의로 편만 하거나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라투아딜(Ratu Adil – 공의의 여신 또는 정의로운 제왕)이 강림해 세상을 평정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까후리빤(Kahuripan)의 국왕 아이르랑가(Airlangga), 싱가가리 왕국 라자사 왕조 (Rajasa Dynasty)의 켄 앙록(Ken Angrok), 마자빠힛 왕국(Kerajaan Majapahit)의 시조 라덴 위자야(Raden Wijaya) 등이, 현대에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의 선봉에 섰던 술탄 하멍꾸부워노 9세와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 같은 이들이 라투 아딜이라 여겨졌죠. 1820년대의 자바 백성들은 디포네고로 왕자가 라투 아딜의 현신이라 믿었습니다. 사족이지만 훗날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맞았을 때 네덜란드 특수부대 대위 출신인 베스털링이란 영악한 자가 라투 아딜을 자처하며 수까르노의 신생정부를 상대로 아프라 반란(Pemberontakan APRA: Angkatan Perang Ratu Adil – 공의로운 여신 군대의 반란)을 일으킨 일도 있습니다.

"요즘 매일 밤 술탄 아궁 대왕의 무덤에 꾼띨아낙이 나타난다는군. 불길한 징조야."

꾼띨아낙이란 출산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여인의 원귀로 대체로 우리 손말명이나 처녀귀신과 통합니다.

"걱정하지 마, 디포네고로 왕자님에게 니롤로키둘이 현신했데. 그분이야말로 마타람의 적통이란 뜻이지. 그분이 우리 왕국을 지켜내실 거야!"

마타람 왕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술탄 아궁(Sultan Agung)의 무덤에서 사람들이 보았다는 불길한 원귀(寃鬼)의 이야기부터 그 옛날 마타람 왕국의 시조 권능왕 세노빠티가 그랬던 것처럼 디

포네고로 왕자도 남쪽 바다 마물들의 여왕 니롤로키둘과 만났다는 소문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야기들이 당시 세간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니롤로키둘은 세노빠티와 만난 후 역대 마타람 제왕들의 영적 아내였다고 믿어졌으므로 니롤로키둘이 디포네고로 왕자를 찾아왔다는 항간의 소문은 그가 진정한 마타람의 후예이자 족자 술탄국의 적통이라는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한편 이슬람 울라마 집단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서구의 관습이 날로 퍼져나가며 자바의 민속과 이슬람의 가르침을 타락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민중들에게 이슬람에 입각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적 타락의 근원인 네덜란드를 속히 퇴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고 디포네고로 왕자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마타람 까르타수라 왕국 초창기인 1647년 폭군 아망꾸랏 1세가 울라마들과 이슬람 학자들을 무더기로 학살하면서 왕가와 이슬람 울라마들 사이엔 오랜 불신과 증오의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왕족이면서도 울라마이기도 한 디포네고로 왕자가 200년만에 그 간극을 극복하며 왕가와 이슬람 사회 양쪽을 모두 아우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슬람 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 모았고 더 나아가 이슬람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상과 분명한 저항의 결기가 모든 울라마들, 이슬람 학자와 지도자들을 움직여 얼마 후 자바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가 점령하다시피한 끄라톤 궁전에서 온갖 권모술수와 비도덕적 행위들이 횡행하고 네덜란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왕국 토지의 대규모 임대로 인한 네덜란드의 영향력 강화, 귀족들과 네덜란드 지주들을 위해 아무 보상도 없는 강제노역에 자주 동원되어야 했던 백성들, 세금 징수를 맡은 화교들의 횡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디포네고로 왕자의 저항이 획기적 지지를 모을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들려오는 소문과 전해 내려오는 전설, 그리고 이슬람 사회의 지지 등을 보고 들으며, 백성들은 오직 디포네고로 왕자만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기대를 더욱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1825년 7월 중순, 네덜란드는 족자에서 문띨란(Muntilan)을 거쳐 마글랑까지 이어지는 도로계획의 원래 경로를 조금 틀어 굳이 뜨갈레조(Tegalrejo)를 통과하도록 수정하면서 자바 전쟁의 직접적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수정된 도로공사가 하멍꾸부워노 외가의 조상 묘소들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매일 등청하진 않았지만 당시 술탄 하멍꾸부워노 5세의 숙부이자 가장 중요한 후견인 중 한 명인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사전 언질은 물론 양해와 허락을 받아야 마땅했으나 그런 절차가 깡그리 무시된 것은 다누레조 4세 재상의 은밀한 입김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누레조 재상이 공사강행을 위해 그 땅에 경계표시 말뚝을 박으려 하자 그제서야 조상들의 묘역이 파헤쳐지게 된 것을 알게 된 디포네고로 왕자가 크게 격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

"저 놈들이 우리 묘역에 박은 말뚝들을 모조리 뽑아버려라!"

디포네고로 왕자는 수하들을 시켜 그 말뚝들을 모두 뽑아 불태워버렸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자카르타 차세대 손현목 대표

인구 2억 7550만 명이 기다리는 무한한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 붉은 적도의 땅에서 당당히 자리잡은 젊은 사업가들의 성공 사례가 미래의 CEO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 2.0] 영 비즈니스리더 칼럼을 기획했다.

1981년에 설립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이하 월드옥타)는 세계 67개국 142개 지회에 7,000여 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영인 26,000여 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로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 주역으로 이루어진 월드옥타 차세대 자카르타 손현목 대표는 월드옥타의 차세대 경제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_World-OKTA_자카르타차세대대표 #I-BLOC_SYSTEMSE_MARANG #마케팅디렉터 #KB손해보험자카르타설계사 #해외취업성공자 #인도네시아취업멘토 #고연봉시티잡 #인도네시아12년차 #아들둘 #AKA운동광 등. 손현목 대표에게 붙는 수식어는 셀 수 없이 많다. 빌딩숲이 우거진 자카르타에서 목표로 했던 '고연봉 시티잡'이라는 두 마리 토끼, 아니 다섯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손현목 대표의 진솔된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안녕하세요, 손현목 대표님. 본인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들.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차세대 대표직을 맡아서 봉사 중인 손현목 입니다. 본업은 I-BLOC SYSTEM SEMARANG에서 프린터 및 잉크 렌탈 마케팅 디렉터와 PT.MDI (MITRA DONGBU INDONESIA) KB손해보험 자카르타 대리점 운영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작은 물류 회사와 식당에 투자해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입니다.

저의 본업은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교민들과 한국 기업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KB손해보험 대리점에서 화재와 홍수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회사에서 투자한 I-BLOCK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프린터와 잉크 관련 비용을 월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사무실과 공장에 발생하는 높은 비용을 절감하며 프린터와 잉크의 수리와 교체에 대한 번거로움도 덜게 됩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작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어 학과에 진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미 인도네시아 이주를 목표로 공부하신 거군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활발하고 활동적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꼭 반장이나 부반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작은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도네시아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진학을 목표로 삼진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어학 분야로 진학을 고민하던 중, 아버지께서 한국보다는 기회가 많은 인도네시아어 학과를 선택해 보지 않겠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널리 배우는 언어보다는 특수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인도네시아 취업 정보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EPS 해외취업' 채널과 KOTRA Jakarta 유튜브 채널에서 해외 취업 성공자 인터뷰 [인니 멘토들의 꿀팁 골라보기]에서 인도네시아 멘토로 출연한 손 대표님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용기를 안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두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상이나 생각으로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하거나 두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이 상상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 마음이 편해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난 할 수 있어",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갈 거야"라고 생각하며 극복합니다.

Q. 다양한 문화와 여러 인종과 함께 지내는 인도네시아의 삶이 마음에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살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Bhinneka Tunggal Ika (다양성 속의 조화)'라는 말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인도네시아 단어 또는 속담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다른 문화,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사는 인도네시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GOTONG ROYONG"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속담 중 "Campur orang dengan pemaling, sekurang-kurangnya jadi pencecak"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믿고 있습니다.

Q. 월드옥타 차세대에 관심 있는 인도네시아의 한인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밖에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 148개 지회에서 28,000여 명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한인 2세, 젊은 사업가들이 모여 본인들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에 사업이나 창업을 꿈꾸고 도전하고자 하는 차세대, 무역에 관심이 많은 차세대, 혹은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하면 옥타 차세대의 일원으로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지난해 9월, 자카르타 지회에서 주최한 아세안 통합 무역스쿨을 발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자카르타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드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차세대 무역스쿨은 기본적으로 지회에서 네트워크 교류와 창업 및 무역 강의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세안 통합 무역스쿨은 동남아시아 지역 차세대들을 한 곳에 모아 정보 교환, 창업 기회, 아이템 공유, 무역의 발판 등을 마련해 주는 자리입니다.

특히, 작년 발리 아세안 통합 무역스쿨은 아세안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많은 자카르타의 젊은 친구들과 다른 아세안 국가의 젊은이들이 참가하여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제인 대회도 함께 주최되어 다양한 업종의 많은 분들과 정보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주인니 한국 대사님과 주인니 미국 대사님도 참석해 옥타 자카르타 차세대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 자카르타 지회에서 최초로 '무역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차세대들이 무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무역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가상의 무역을 경험하고,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며 무역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많은 차세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자신합니다.

Q. 자카르타 차세대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자카르타 차세대 자랑 한 번 해주세요.

자카르타 차세대는 자랑할 게 많아서 뭐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네요. (웃음) 먼저 차세대 운영진과 총무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들 각자 바쁜 업무 와중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뛰어나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후배들을 이끌고 선배들을 챙기는 모습에 대표로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저희 차세대는 인력풀이 굉장히 넓고 끈끈합니다. 인도네시아 전역, 1,900,000㎢에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넓은 지역을 커버하며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에 처음 옥타 차세대를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분들과 아직도 활발히 연락하며 지냅니다. 물론 새로 온 친구들과도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타지에 살며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젊은 전문가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IT, 패션, 뷰티, 무역, 유통 및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옥타 차세대의 자랑입니다.

Q.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장 김종헌 회장님과의 팀워크나 유대감 같은 '케미'도 중요하겠군요.

물론입니다. 김종헌 지회장님은 약 15년 전 저희 차세대 1대 대표로 활동하셨으며, 자카르타 차세대 위원회를 발족시킨 주요 멤버 중 한 분입니다. 현재는 자카르타 지회장으로서 많은 차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차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주시고, 고민 상담,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차세대들과 잘 어울리며 융화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척 닮고 싶은 분입니다. (미소)

Q.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로 인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IRI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로 아시아 국가에 보험회사가 진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내 보험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시장의 성장 정체로 인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보험사들이 주로 아시아 국가들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이유는 이미 한국계 기업들이 진출해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에 따른 교민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해보험 업종은 기업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반 기업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한국계 기업과의 비즈니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보험사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국계 교민과 기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인과 현지 기업에 맞는 상품 개발과 판매 채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KB손해보험도 설립 초기에는 한국계 기업 및 교민 시장에 집중하여 매출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현지에 진출한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현지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 할부금융사와의 협력 등 매출 채널을 다변화하여 현지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손 대표님께서 PT.MDI (MITRA DONGBU INDONESIA) KB 손해보험사로 교민과 기업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계시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채널 전략을 통한 핵심 역량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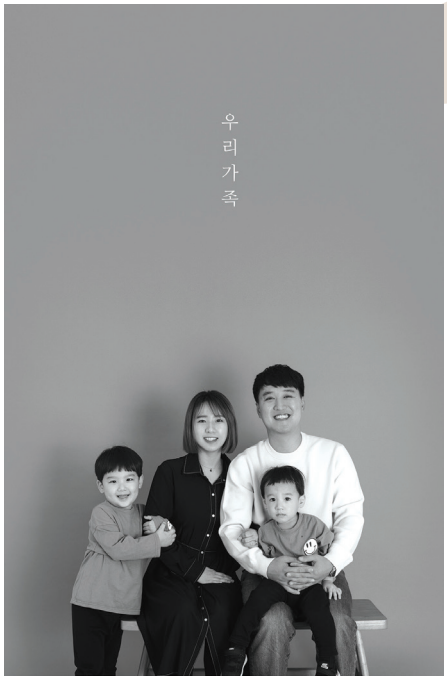
현재 KB손해보험 자카르타 대리점에서는 화재보험, 지진보험, 기업 휴지보험 등의 상품을 설계하고 요율을 맞추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동차 보험, 개인 및 단체 상해보험을 설계하고 견적을 만들어 드리면서 인도네시아에 계신 한국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돕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다수의 교민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도보 이동이 어려운 교통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동차를 1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가족과 차량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보험사는 대처 능력이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서 병원비 등의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이 좋습니다.

Q. 소규모 물류 회사와 식당에 투자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이시라고요? 인도네시아 생활 10년차에 투자할 안목이 생기셨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비결이 궁금합니다.

하하하! 이제 막 투자한 회사라 성공 여부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어 투자를 성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업가 기질이나 창업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사업가 기질이 있더라도 성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으며, 작은 팝업스토어를 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투자한 회사나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하고, 사업 기반이 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물론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투자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경험이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맥 관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작은 기회라도 오게 됩니다. 세미나, 교육, 컨퍼런스 등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공부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다양한 아이템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Q. 가족들과 함께 워라밸을 챙기면서 사는 인도네시아의 삶을 즐기고 계신데요. 손 대표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찡한 단어입니다. 저에게 가족은
'원동력' 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듯이, 가족은 저에게 기름이 되어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Q. 미흡한 나를 완성시켜주고 "인생은 아름답다."고 믿게 해준 고마운 아내에게 짧은 편지 한 통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쑥쓰럽습니다. (쑥스럽다는 말과 함께 아내를 위한 마음을 쏟아내는 사랑꾼)
이 먼 타국까지 군말 없이 믿어주고 따라와 준 민지야,
항상 고마워.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 처음 올 때는 두 명이었는데 이제는 두 명의 아이를 둔 완벽한 가족이 되었네. 바쁘다는 이유로 늦고 출장이 잦지만 묵묵히 응원해주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항상 나를 지지해주는 여보, 고마워. 지금 힘든 시기를 함께 건너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노력한 만큼 더 좋은 날이 계속 다가올 거니, 나 믿고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Q. 급조한 질문 하나 드려야겠네요. 손현목은 '아내바보'인가, '아들바보'인가?

하하하!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들바보에 가까운 아내바보' 인거같아요. 머리는 아내바보로 향하는데 마음은 아들바보인 것 같아요. 매일 퇴근하면 아내가 수고했다고 안아 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큰데, 제 눈은 아들놈들을 먼저 찾는 것 같아 미안해지네요. (한인뉴스는 손현목 대표님을 가족바보로 인정합니다!)

Q. 차세대 경제 리더로서 손현목 대표님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 "인도네시아에는 손현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 고 할 정도로 넓은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제 신조 중 하나는 굳이 적을 만들지 말자는 것으로, 모든 분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인맥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템을 소개받거나 빠른 정보를 얻는 것이 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맡은 임무는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성향도 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이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이영미 작가님도 보셨듯이, 제가 자주 사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Q.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체력 관리는 리더십만큼 중요하죠. 저도 매일 아침 헬스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손 대표님은 평소에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운동광'이라고 들었는데, 골프 외에 즐겨 하시는 운동이 있나요?

얼마 전 자카르타 농구 모임에 갔었는데, 운동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팔을 들고 하는 운동은 제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하하! (자조적인 웃음) 농구, 배드민턴, 배구처럼 팔을 들어야 하는 운동보다는 축구, 야구, 족구, 골프와 같이 손을 높게 들지 않아도 되는 운동을 더 잘하고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화요일에 족구, 토요일에 골프, 일요일에 축구나 야구를 취미로 동호회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 노력합니다. 평일에는 런닝이나 헬스를 하고, 주말에는 지인들과 골프를 치거나 아내와 함께 이슬 맺힌 필드를 걸으며 골프를 즐깁니다.

Q. 손현목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가장 큰 목표는 우선 저희 가족이 건강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막 입학했는데, 여기서 학교를 잘 다니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어른들을 존경하는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앞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선정하여 투자 파이프라인을 더욱 확장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완성된 사업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또한 젊은 친구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이나 사업 목표를 가진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멀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땅입니다. 사업이든 취업이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면 분명히 좋은 직장이나 창업 아이템 등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마흔이 된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일이든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하!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이 되고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한방 韓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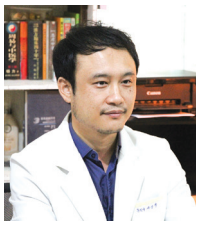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

3대 노인 질환

1.치매
2.파킨슨
3.심혈관질환(심장병,중풍)-생략
4.고독사,호흡기질환(부록)

4. 고독사

20년의 교수생활을 마치고, 은퇴 한 지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동네에서 꽤 유명한 장로였다. 아직도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고맙다. 한편으로는 나는 날이 갈수록 잊히는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 가끔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어 밤잠 설치는 날도 있다.
아내는 나와 다르게 늙어서 더 활발히 활동한다.
예전에는 취미활동이 비슷해서 잘 어울려 다녔는데, 지금은 아침에 산책하는 것 외에는 각자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몸도 마음도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친구가 적고, 아내는 친구가 많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왜 교류하는 친구가 적을까?
천성이 승부욕이 강해서 남들에게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와 반대로 아내는 남들에게 양보도 잘하고, 상대방 얘기도 잘 들어주는 편이다. 사실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이런 아내의 성격이 큰 이유였다. 또 생각해보니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주위 친구들과 지인들이 생각났다.
아내는 모임이나 쉼터를 찾아 웃으며 사람들과 교류했고, 나는 스스로 이런저런 핑계 거리를 찾아 자리를 피했다. 솔직히 말하면 대중들 앞에서 애기하던 내가 일반인들을 만나 웃고 떠든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이상하고,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나의 생각 때문이었을까?
가족들도 지인들도 모두 나와 멀어지는 느낌이다. 오직 주에게 손을 내밀고 간구했건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그래서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보기로 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참여하여,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도록 노력했다. 때때로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 나가야만 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몇몇 고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나를 챙겨준 것인데, 아직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내 일은 내가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주위에서 봤을 때는 딱딱하고 다가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나는 두려웠다.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나를 가르치려 들려고' 하면 얼굴표정 관리가 힘들었다. 반평생 남들 앞에서 얘기 했던 사람이 조언이나 정보를 주는 것도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인사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도 있었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꽉 막힌 사람으로 보였을까?
사실 나 같은 사람을 본적이 있는데, 속으로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문득 나같이 고독을 느끼는 노인들의 정보를 찾아보다 한국의 고독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알아볼수록 충격을 금치 못했다.
고독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한해 사망자수 또한 3천명이 넘었다. 또한 OECD 국가중 한국의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경제난으로 얼어 죽거나, 홀로 방치되고 소외되어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이렇게나 많다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시체가 부패되어 악취로 인한 이웃들의 신고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남겨진 유산이 있으면 모를까, 유가족들과 연락 닿기가 힘들고, 연락되어도 장례치르기를 기피하거나,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평생을 주님의 품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한 나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나같이 늙어가고 소외되어 잊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하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꽉 채울 때 쯤, 나는 습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자.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자.

우선 동네 동사무소 복지과를 찾아가서 독거노인들의 주소지를 받아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동태를 파악했다. 대부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국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다. 철이 바뀌고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냉난방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올라가는 물가에 걱정이 많으셨다.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생활수준 차이가 꽤 컸다. 하루에 2-3집을 방문하여 사정을 들어보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노트에 기록했다. 나 또한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으로써 큰 힘은 없지만 하는데 까지 해보자. 그래도 난 배고픔 걱정없이 사지 말짱하고 정신 또렷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도 걸어가는 두발이 가볍고 힘차다.

아래 소개드릴 내용은 한 언론사의 기사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60-80대 노인〉

가장 추운 겨울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의 추위라고 말씀하신다. "경로당, 공원, 체육시설 다니면 재미는 있어. 근데 허한 마음이 안 채워져. 이번에 첫째 손주놈 장가간다는데 얼굴도 구경 못했어. 내가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지. 사진이라도 받아 보면 좋으련만. 벌써 몇 년째 만나지 못했거든. 결혼 소식도 둘째한테 전화로 들은 거야. 그냥 전화 한통이라도 하면 맘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가스 활명수를 맨날 마셔도 속이 뚫리지가 않아! 나라에서 안 도와 줬더라면 난 벌써 하늘나라로 갔을 거야. 고맙긴 한데 갈수록 금전이 부족한건 사실이야.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다 지원이 되지만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 나같이 어디 한군데 의지 할 곳 없는 늙은이는 돈 떨어지면 굶어야해. 그나마 무료 급식을 찾아 끼니를 해결 할 때도 있는데 거리가 멀어.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이야 걱정~"

〈20-30대 청년〉

"열심히 산 것도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오고, 쨍하고 해뜨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생활했는데,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어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 힘들고, 이런 마음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더 힘들어요. 젊으니 다시 해봐라. 좀 더 부지런히 해봐라. 좀만 더 참고 해봐라. 주위에서 해봐라, 해봐라 이런 말들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힘이 빠져요."

〈50대 장년〉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인생의 성공실패가 판가름 나는 시기라 여기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부의 축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50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독사 극복방법

1.자존감 높이기(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노년기에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실감으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우울수준이 낮고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기술의 힘을 활용(AI스피커, 사물인터넷 등)

AI스피커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에 119와 연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과 다양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말동무, 비서 역할 수행 등 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연계하여 패턴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고,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가 감지해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 등 다방면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건강한 육체 만들기

40대부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30년 후 70대가 됐을 때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0% 이상 높다는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4.사회적 관계성 가지기

노년기에는 굳어버린 사고방식으로 인해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지며, 배우자 사망, 건강문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친구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스트레스와 우울 지수가 상승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기존 관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일상의 활력과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5.경제적 지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에 접어들면서 노후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족한 공적연금과 의료비 부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록

호흡기질환

폐렴은 70세 이상의 노년층 환자에서 매년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질환으로써, 노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합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 기관지 이하 폐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며,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가래, 몸살 등이 나타납니다.

허나 노인들의 경우, 전형적인 증상없이 입맛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없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고 헛소리를 하는 등의 막연하고 뚜렷하지 않은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다른 문제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폐렴으로 진단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쳐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렴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여 면역세포들이 정상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그리고 외부활동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다수의 나라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더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65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50-60대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세대 또한 늙어가는 과정을 피할 수 없으므로 다가올 노년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내 주위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글

코로나 이전에 3년간 데뽁에서 무료 진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다는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BPJS 제도가 자리 잡혀 많은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침, 뜸이라는 도구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많은 질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통증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 한의학 의술이 많이 보급되길 기대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韓方

차세대 화합의 밤 행사 성료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지회장 김종헌)는 2023년 발리통합무역스쿨을 수료하고, 2024년 8월에 치러질 차세대 마닐라 글로벌 통합 무역스쿨(예정자) 및 타국가 지회 차세대들과 교류하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카르타 월드옥타 신지훈 차세대 위원장, 손현목 차세대 대표, 노병진 차세대 부대표 등 약 40명의 젊은 기업가와 기업가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 장소는 자카르타의 Egg Hotel 루프탑으로, 동남아시아 네트워크와 자카르타 차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긍심을 느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타국가에서의 참석자들이 이번 화합의 밤을 더욱 빛내주었다.

태국 – 방콕 이재광 대외협력국장, 베트남 – 호치민 정지훈 대표, 필리핀 – 마닐라 양승우 차세대 대외협력 이사, 캄보디아 – 프놈펜 강우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카르타 지회 김종헌 지회장 및 임원의 지원 아래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카르타 차세대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동남아시아 각국의 젊은 리더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는 한인 경제인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 71개국에 150개 지회를 통해 한인 기업가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월드옥타는 다양한 무역 스쿨과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차세대 한인 경제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단체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및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로 2024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차세대무역스쿨인 모국방문을 통해 손현목 차세대 대표, 이동현 차세대 부대표 등 3명이 자카르타 지회의 대표로 인천 송도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전세계 차세대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2024년 8월 21일(수)부터 8월 24일(토)까지 차세대 글로벌 통합 무역스쿨이 필리핀–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한인 차세대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차세대 화합의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의 활약이 기대된다.

(제공: 월드옥타자카르타지회 사무국)

골프 스윙을 잘하는 방법 – 빈 스윙 연습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골프 명언 중에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갤러리가 알고, 사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안다'는 말이 있다.

전설의 골퍼 벤 호건(William Ben Hogan)이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은 20세기 후반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이 했던 말이 각 분야에 각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명언이 되었다. 그는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고 했다.
인생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삶의 이치(理致)는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골프를 잘 치려면 무엇보다 꾸준한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반복된 연습이 플레이의 수준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골프 천재라고 불렸던 성공한 세계적인 선수들의 성공 스토리에는 하나같이 연습 벌레라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다. 지금도 전세계의 골프 꿈나무들이 이런 선례를 따라 투어 프로를 꿈꾸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골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주위 사람들 중에 골프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싱글 스코어를 기록하거나 매 라운드마다 싱글 핸디캡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주목해 보자.

할림 1홀 15파 5

그들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싱글 스코어를 달성하고, 싱글 핸디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외 없이 거의 매일 골프 연습장을 가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라운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에서도 틈만 나면 골프 클럽을 들고 빈 스윙 연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들은 스윙 연습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임팩트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어프로치, 퍼트를 잘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주말 라운드를 즐기는 아마추어 골퍼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골프를 처음 배울 때는 정확한 스윙을 가르칠 수 있는 레슨 프로의 지도가 필수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혼자서 연습하게 되는데, 이 때 레슨 프로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신만의 올바른 스윙을 만들어 가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빈 스윙 연습'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타이거 우즈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빈 스윙 연습으로 효과를 봤고 지금도 빈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고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아이언 클럽을 캐비티백(CB)에서 머슬백(MB)으로 바꾼 시점부터 빈 스윙 연습을 시작했다. MB 아이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윙 폼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아이언으로 아웃-투-인 궤도의 스윙을 해왔지만, MB 아이언으로 교체하면서 임팩트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거리를 증가시키며 다양한 샷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타이틀리스트 716 MB 아이언

빈 스윙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

1. 스윙 리듬과 템포를 유지

골프 스윙에서 리듬과 템포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만의 일관된 스윙 리듬과 템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비거리와 방향성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할 때 '하나~ 둘!', '하나, 둘~ 셋!' 또는 '자장~면!', '짬~뽕'과 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핸디캡이 낮아질수록 스윙 리듬과 템포의 중요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

주말 골퍼의 스코어는 종종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타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골프 실력보다는 일관성 없는 컨디션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날의 컨디션 변화에 따라 스윙 리듬과 템포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어 프로들은 대회 며칠 전부터 일상 속의 사소한 행동까지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 집에서 가볍게 빈 스윙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연습량이 부족해도 자신만의 스윙 리듬과 템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스윙폼 교정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장 많이 교정하고 싶은 스윙폼은 아웃-투-인 궤도의 스윙인데, 슬라이스 구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경주 프로는 슬라이스 구질보다 훅 구질이 더 무섭다고 얘기했다. 슬라이스 구질을 교정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윙 폼 교정은 빈 스윙 연습을 통해서 먼저 몸에 익히고 나서 연습장 또는 라운드를 가서 결과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임성재, 김효주 선수를 비롯한 투어 프로들도 빈 스윙을 통해 잘못된 스윙폼을 교정한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스윙폼을 교정하기 위해서 연습장을 찾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추어 골퍼들은 공을 있을 때와 없을 때 스윙 폼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몇 번 잘 맞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래의 스윙폼으로 돌아온다. 또한 라운드를 나가서 스윙폼을 교정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라운드 중에는 골프 레슨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좋다.

3. 스윙에 필요한 근력 유지

나이가 들수록 몸무게는 줄어들고 샤프트의 무게도 점점 가벼워진다. 보통 보기 플레이어가 18홀 라운드 중 퍼트를 제외하고 빈 스윙을 포함해서 약 150~200번의 스윙을 한다.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일관된 리듬과 템포로 샷을 할 수 있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근력이 부족하면 인코스에서 체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집에서 매일 10~20분씩 빈 스윙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골프 클럽이 가볍게 느껴지고 더 자신 있는 샷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력 유지를 위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좋으며, 걸을 때의 리듬감이 스윙 리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빈 스윙은 스스로 스윙의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빈 스윙 연습 방법

자카르타의 아파트는 높은 층고로 인해 거실에서 드라이버로 풀스윙을 해도 천정에 닿지 않는다. 풀 스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빈 스윙 연습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가족들의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는 시간에 연습을 하거나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연습을 하자. 가끔씩 스윙 중에 아이언 헤드가 빠져서 사고가 난 사례들이 있다.

먼저 처음 골프를 배울 때와 같이 느린 속도로 짧은 스윙을 시도해 보자. 이때 테이크 어웨이, 스윙 궤도와 임팩트 자세, 팔로우 스루 등에 집중하자. 풀 스윙을 할 때보다는 몸이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짧은 스윙을 조금 빠르게, 꾸준히 연습하면 풀스윙을 하는 것만큼 강력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된다. 짧은 백스윙이 반드시 비거리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짧고 간결한 백스윙은 임팩트의 정확성을 높여 비거리를 유지하고, 그린 근처에서의 숏 게임과 트러블 상황에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빈 스윙 연습을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연습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울이나 창문, TV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연습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만의 스윙 시퀀스(Swing Sequence)를 만들어, 각 단계별로 순서에 맞게 몸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한인회, 함평군과 농특산품 수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전라남도 함평군(함평군수 이상익)과 재인니한인회(회장 박재한)는 2024년 7월 24일, 한인회 회의실에서 함평군의 농특산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유통, 판매, 소비촉진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IKS

내가 바로 미래의 K-Star! 너의 꿈과 끼를 펼쳐봐!
2024 JIKS Talent Show

지난 7월 22일(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4 JIKS Talent Show 행사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끼를 가진 1~6학년 110명의 JIKS 초등과정 학생들이 56개의 공연에 참여한 이번 행사는 노래, 춤, 태권도, 마술쇼, 악기 연주 등 그동안 갈고 닦았던 학생들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무대로 구성되었다.

본교 나래홀에서 개최된 행사는 학생 대표들이 유창한 영어로 재미있게 진행하였으며 관람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힘찬 응원을 보내주었다.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한 다양한 무대를 보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Culture의 열기를 학교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한국의 자랑인 태권도와 악기 연주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멋진 학생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무대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무대를 관람하는 학생들에게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더 열심히 키워야겠다는 동기가 되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앞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을 빛낼 멋진 K-Star가 배출되길 기대해 본다.

물살을 가르며 더운 날씨를 이겨내자!

2024 JIKS Swimming Competition

지난 7월 5일 (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4 JIKS Swimming Competition 행사가 진행되었다.

매주 수영 수업 시간과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수영을 배우고 실력을 늘려온 82명의 학생들이 멋진 수영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는 남녀, 학년별(1~2학년 25m/3~6학년 50m)로 나누어 자유형, 배영, 평영 시합을, 6학년 학생들의 접영 시합까지 포함하여 총 4개 종목의 시합으로 구성되었다.

본교 수영장에서 개최된 대회는 교장선생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준비운동, 학생들의 출발 시범 참관 후, 본격적으로 종목별 개인 경기가 시작되었다. Mr. Kevin와 Ms.Lulu(JIKS, 영어원어민교사)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수영 경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민들레반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많은 학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응원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멋진 승부를 펼친 선수들에게는 성별, 종목별 금, 은, 동메달이 수여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수영 실력과 체력을 기르고, 경기의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수영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건강도 챙기고 더위를 이겨내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창의성과 협동심을 키우는 특별한 도전, 페트병 경주대회

7월 19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는 방학을 앞두고 3학년 학생들이 페트병과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학교 수영장에서 경주를 펼치는 행사가 열렸다.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3일 전부터 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성을 발휘해 배의 구조와 디자인을 고민하며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배를 완성했다.

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력을 높이고 무게를 낮추기 위해 페트병 뚜껑을 닫아 공기를 가득 채우고 테이프의 접착력을 고려하여 페트병을 어떻게 연결해야 좋을지 직접 체험하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울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회에서 사용된 재료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이었다. 가정에서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윤한수 교사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버려질 수 있는 페트병이 새로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번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배가 뒤집히거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팀원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번 페트병 배 경주대회는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협동심, 환경 보호의 중요성 등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전달한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즈빠라 한글학교의 새 힘!

전북 타임즈 & 즈빠라 한인회 MOU

중부 자바의 즈빠라 한글학교장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한글학교가 즈빠라 한인회와 고국의 지역 신문사의 관심으로 새 힘을 얻게 됐다.

지난 12일~13일 전북타임즈신문(대표 최준호)과 즈빠라 한인회(회장 박호섭)는 즈빠라 한글학교(교장 대행 남혜성)를 방문하고 한글학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한글을 배우려는 현지인들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고 후원 의사를 밝히고 MOU를 맺었다.

즈빠라 한인회는 대지 2064㎡에 건평884㎡의 한인회관을 설립하고 강당과 교실, 실내체육관을 꾸며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300여 명의 현지 학생 및 한인 학생이 한글을 배우고 있으며, 단일 한글학교로는 인니 최대 규모로 한글 세계화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30년 전부터 가구산업으로 시작된 즈빠라 한인회는 한류로 뜨거워진 인니인들에게 한글학교를 통해 K-Pop, K-Food, K-Culture를 전파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가구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지역 한인회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박호섭 즈빠라한인회장

지난해에는 한인회관 준공식을 가졌고 인니 최대 한글학교를 마련하고 지난 1월6일 김판식 교장의 후원 아래 한글학교를 열자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 들었다.

운영의 재정이 문제였지만 기업을 성공한 'PT Donglim' 김판식 사장이 교장에 취임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 왔으나, 지난 4월 14일 뎅기열로 돌연 운명하여 학교는 구심점을 잃고 운영난에 빠지게 됐다.

이러한 쯔빠라 한글학교의 어려움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북타임즈신문' 최준호 대표와 신문사 관계자들은 즈빠라 한인회관을 방문해 한글학교 관련 운영시설을 확인했고, 한글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한글 교육 현장을 학생들과 함께 경험했다.

또한 학생들과 진학 및 취업 상담을 통해 폭넓은 한국 진출 관련 정보 등을 전달했으며 상담 후 학생들은 한국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한글 공부에 더 많은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한글학교 임원과 전북타임스신문 경영진은, 즈빠라 한인회와 회의를 통해 현 즈빠라 한글학교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공감을 함께하고 향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찾아보자는 MOU를 맺었다.

최준호 전북타임즈 대표는 "먼저 머나먼 이국땅에서 대한민국 알리기와 한글 전파에 힘쓰고 계시는 한인회 박호섭 회장님과 회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내고 특히 한글을 가르치며 봉사하는 최영미 목사님 부부께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건네고 "즈빠라한인회 관계자분들의 봉사와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학교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한인회와 전북타임스신문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에 박호섭 회장과 남혜성 교장대행은 "즈빠라 한글학교 활성화를 위해 전북 타임즈 대표와 임원의 방문을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며 "한글 세계화를 위해 즈빠라 한글학교가 선봉장이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취재 및 기사정리: 이태복(사산자바문화연구원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하여

서미숙(한국문협 인니지부 고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소리와 더불어 고유의 이름을 얻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인류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나름대로 가치를 따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가치라는 옷을 입혀 사람에게는 이름을 그리고 물건이나 사물은 쓰임새를 따져 값으로 환산하기 시작했다.

가치 척도(尺度)를 가름하는 의미가 더 크겠지만 딱히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인간 삶의 품격과 고귀한 가치는 한 시대를 살다간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렇기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했을 것이다.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마도 훌륭한 인품으로 살다간 이름을 자손대대로 후세에 남기게 되는 영광이 아닐까. 한번 주어지는 삶이기에 소중한 가치를 발산하라는 선인들의 교훈인 셈이다.

나는 요즘 인도네시아보다 주로 한국에 더 많이 살고 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여기저기 신체리듬에 고장이 생겨 자주 병원을 찾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식단도 챙길 겸 아파트 근처 번화가에 있는 대형마트로 자주 장을 보러 간다. 인도네시아 살 때도 한류 붐을 타고 들어온 크고 작은 한국형 마트를 주로 찾았는데 애국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 물건의 품질이 세계 어느 상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 살면서 좋은 점은 언제나 한국 음식이 즐비한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누적 포인트가 쌓이는 쏠쏠한 재미도 있다.

문득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인생을 살면서 이국적인 경험을 체험했던 인도네시아 생활은 어쩌면 특별하고 값진 혜택이라 여겨진다. 항상 고국을 그리며 살았기에 애국하는 마음이 일상에서 저절로 우러났으니 말이다. 집 근처 대형마트가 새로 생긴 후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다녔더니 포인트가 상당히 쌓였었나 보다. 그날도 잔뜩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 다가서니 마트 직원은 포인트용 선물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골라가라는 것이다.

내 포인트 점수 중에서 가장 합당한 물건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4센티 정도의 전골용 코팅 냄비였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냄비였고 무엇보다도 먼저 든 생각이 공짜로 주는 냄비가 뭐 특별할까 싶었다. 그래서 포인트용 물건을 받으면서도 무표정한 반응을 보이며 대수롭지 않게 장바구니에 담아왔다.

나는 집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사 온 물건을 정리한 후 새 전골냄비도 꺼냈다. 무심코 그냥 집어넣으려다 아니지, 이왕이면 오늘 저녁은 새 전골냄비에다 찌개나 끓여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그동안 싫증도 났던 예전의 커다란 뚝배기는 무겁기도 해서 그냥 싱크대 구석에 밀어 넣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주부의 일상은 늘 새로움에 목마른 차에 잘 되었다 싶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 냄비에 시금치를 데치고 씻어 놓은 뒤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끓일 심사로 다른 수입 냄비를 꺼내려다 귀찮아져 그 전골냄비에다 그냥 된장찌개도 끓이기 시작했다. 어! 그런데 이것이 요술 냄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전에 데쳐둔 시금치는 여태껏 주부 경력으로 데쳐왔던 시금치와는 다르게 파랗게 살아 숨을 쉬고 있었고 된장찌개 또한 얼마나 깔끔하게 끓여지는지 몰랐다.

그날 공짜로 받아온 냄비는 저녁에 된장찌개를 다른 날보다 한 냄비 가득 끓여대도 넘치지 않는 넘침 방지 시스템도 장착된 냄비였다. 그리고 한번 열을 받으면 지열도 강해서 가스 소비도 줄일 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그다지 무겁지 않으면서 수세미로 한번 쓱 스치기만 해도 얼마나 잘 씻기는지 모른다.

그야말로 일석다조(一石多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냄비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부엌살림 중 그 포인트로 받아온 전골냄비 하나만 존재해 왔던 것처럼 모든 요리를 오직 그 냄비에다 삶고 데치고 지지고 끓이면서 그 냄비 하나에만 매달리게 되었다. 고구마와 감자를 삶을 때에도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 단내를 솔솔 풍기고 당면을 삶을 때는 당면 가닥이 눌어붙지 않아 오동통한 면의 탄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요리의 다양성을 저 혼자 연출해 내는 공짜 전골냄비가 어느새 온통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거였다. 한 가지 새로움을 발견할 때마다 내 입에선 저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어머나! 어쩜, 오, 놀랍기도 하네. "역시 넌 대단해, 볼수록 신기하네. 그래, 소중하게 사용할게!" 이렇게 그 냄비와 사람처럼 얘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마치 그 냄비는 그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매일 새로운 능력을 보여 주는 것 같았다.
문득 생각해 보았다. 과연 이것이 뭘까 싶었다. 나의 관찰력일까. 아니면 사물이나 작은 곤충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하는 특이한 습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찮게 보였던 공짜 전골냄비의 가치가 무엇이기에 이렇듯 몇 날 며칠을 사람도 아닌 물건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름대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값을 치르지 않은 공짜 전골냄비가 비싼 전골냄비의 성능, 그 몇 곱절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냄비가 다른 고가의 수입 냄비들처럼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샀더라면 아마도 그 가치는 또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가의 물건은 그에 합당한 가치를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그 성능의 우수성을 추가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공짜로 받아온 냄비가 공짜의 가치를 열 배, 아니 스무 배 해내었기에 내 마음이 사물인 냄비와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게 되는 만족감을 얻었는지도 모른다.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저마다 주어진 인생의 몫은 모두가 다르다. 현재의 위치에서 그에 알맞은 도리를 지키며 자기 이름 석 자에 대한 몫을 제대로 한다면 어디서든 어느 위치에 있든 떳떳하고 보람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로 환산되는 물건은 우리가 아는 숫자로만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에서 얻는 가치는 숫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영원한 무한대(無限大)인 것 같다.
공짜 전골냄비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로 인해 가늠해 보는 사물의 가치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고귀한 삶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한척도를 지닌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 냄새가 쏠쏠 나는 정겨운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보람 있는 가치를 발산하며 살고 싶은 소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염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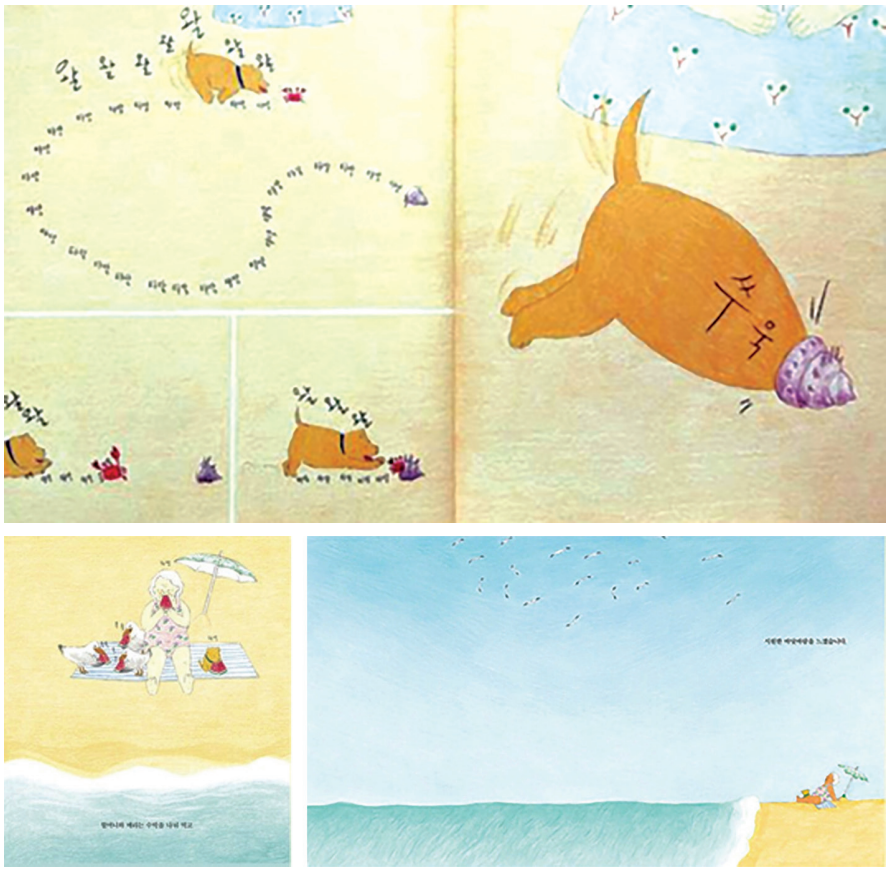
"바다를 선물하세요"

『할머니의 여름휴가』
안녕달 그림책, 창비, 2016

얼마 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엄마. 영원한 것은 없다지만 사람의 시간만큼 변하지 않을 듯하면서 눈 깜짝할 새 흘러가는 것이 또 있을까 싶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던 나의 젊은 엄마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 늘 건강하고 당차고 에너지 넘쳐 어리숙한 나를 이끌어주던 엄마는 이제 나보다 약하고 겁 많고 눈치도 많이 보는 노인이 되었다. 늙은 엄마가 어색하듯 『할머니의 여름휴가』 표지 속 나이 든 여인과 수영복 그리고 바닷가는 어딘가 익숙하지 않다. 팔순을 바라보며 점점 어깨도 굽고, 고장 난 무릎에 금속을 넣어 걷는 게 힘든 나의 어머니가 표지 속 여인과 겹쳐 보인다.

무더운 여름, 강풍 버튼이 고장 난 선풍기 그림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나이든 여인과 강아지 한 마리가 노인만큼이나 오래되어 덜덜거리는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고 있다. 밥상에 놓여있는 약 봉투는 그녀의 건강이 나이만큼 수월치 않음을 짐작게 한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리며 반가운 손자가 찾아온다. 할머니에게 바닷가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며 바닷소리를 담은 소라를 선물로 준다. 귀에 대는 순간 할머니의 눈앞에 에메랄드빛 바다와 모래성이 펼쳐진다. 바람 한 점 없는 오후, 할머니는 옛날 수영복, 양산, 돗자리 그리고 수박 반쪽을 들고 강아지와 함께 소라 속으로 들어간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독자들에게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작가 안녕달은 『수박 수영장』, 『왜냐면…』에서 보여주듯 『할머니의 여름휴가』에서도 무료하고 답답한 일상에 청량한 마법을 뿌려주었다. 소라에서 나온 할머니를 기다린 풍경은 바로 표지 속 드넓은 백사장과 쪽빛 바다. 바닷물에 몸을 담가 보고, 갈매기들과 수박도 쪼개 먹는다. 손자 녀석처럼 햇볕에 몸을 태우기도 하면서 한가로이 그녀만의 휴가를 즐긴다. 기념품 가게에서 조개로 만든 바닷바람 스위치를 사서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고장 난 선풍기에 조개를 끼우니 바닷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이 집안을 가득 채운다. 공기를 타고 신선한 바다 내음도 은은하게 날 듯하다. 첫 장과 달리 할머니의 거무스름하게 탄 피부를 보고 있으면 독자도 같이 휴가를 다녀온 것처럼 묘한 안도와 행복을 느끼게 된다.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연필 그림은 작가가 추구하는 모호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표현하는데 제격으로 보인다. 화사해 보이지만 동시에 아련한 애잔함까지 느껴지는 것은 작품 속 그녀가 우리의 가족 혹은 미래의 우리 모습이기도 해서일까? 할머니가 왜 혼자 사는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독자는 알 수 없다. 작가는 그녀의 하루 중 몇 시간만을 공유했고, 여백이 많은 그림이나 영화를 보듯 읽는 이는 각자의 경험과 기억으로 나머지를 채워 상상해야 한다. 그래서 아련한 그림과 함께 비어 있는 이야기가 더 탄탄하게 느껴진다. 중간중간 만화처럼 분할 컷으로 이어진 그림들은 자칫 늘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가볍게 전환해 준다.

그림책 속 구부정한 그녀의 허리가 절뚝거리는 내 엄마의 무릎처럼 애처롭다. 몸이 둔해졌다고 마음도 무뎌지는 것은 아니니까. 아파도 여전히 바닷가에 가보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싶은 그녀들에게서 삶의 애착이 느껴진다. 빠르지 않지만, 느려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책 속 기념품 가게에서 선물을 골라, 올여름 걷지 못하는 나의 아픈 엄마에게도 전하고 싶다. 속이 탁 트일 듯한 시원한 바다를 말이다.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암바라와로 떠나는 시간여행

인도네시아 한인의 자취를 밟는 역사탐방

- 탐방 장소
  스마랑, 암바라와 등 태평양전쟁 속 고려독립 청년당의 활동 지역
- 대상 : 인도네시아 한인 학생
  10, 11학년
- 일시 : 2024년 8월 27일~28일
  (1박 2일)

탐방비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전액부담

후원: 재외동포청, 중부자바한인회

"인도네시아는 도끼다"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인도네시아는 내가 한국에서 쌓은 생각의 경계를 부수는 도끼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것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생각의 촉수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는 도끼다"라는 문장은 독일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가 처음 말한 것으로 알려진 "책은 도끼다"라는 말을 패러디했음을 먼저 밝힌다. 카프카는 "책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책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깨우고, 기존의 생각을 뒤흔들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후에 많은 작가와 문학 평론가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박웅현이 자신의 저서 『책은 도끼다』에서 이 말을 인용하며 널리 알려졌다. 내 입장에서 '책'을 '인도네시아'로 바꾸면, 한국과 너무나 다른 나라인 인도네시아로의 이주는 지리적인 국경을 넘어서 나의 사고의 틀을 깨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가야 한다고 들었을 때 떠오른 단어는 '열대, 이슬람, 야자수, 독재자 수하르토, 민주투사 메가와티, 저소득국가' 등이었다. 하지만 1999년 7월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에서 자카르타 시내로 이동하면서 본 도로를 호위하던 초고층빌딩들은 저소득국가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 말에는 한국에서도 초고층빌딩이 드물었다.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에는 최신형 벤츠부터 낡은 바자이와 목초를 실은 소달구지까지 함께 다녔고, 대로를 벗어나면 저소득국가의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자연환경이 다르면 생활방식이 바뀐다. 일 년 내내 덥고 습한 열대기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여름옷만 있으면 된다. 겨울옷도, 이불도, 가습기도, 난로도 필요없다. 대신 거의 모든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쌀을 상온에 두면 쌀벌레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생긴다. 옷장에 제습제를 넣

어두어도 옷을 입을 때 눅눅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 현지인들은 아침저녁으로 샤워한다. 한국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샤워를 자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하면 '땀띠'와 '습진' 같은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다. 나는 성경 속에 묘사된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들이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고대 중동 사막에서는 현대 한국과 다른 생활방식과 사고체계가 형성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들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무슬림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접하는 이슬람과 무슬림은 서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 건설 노동자들이 경험한 아랍국가의 이슬람이 대부분이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지하드 전사, 테러리스트...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맞았지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먹는 것은 허용했다. 2000년대 초반에 테러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무슬림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테러의 피해자들이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처음 이슬람을 전파한 사람들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아랍 무역상들로, 그들은 교역하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슬람교를 전파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 즉 무슬림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세속국가이다. 세속국가는 종교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부분 국가는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도 세속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정치면에서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국가이다. 종교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교를 포함해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와 유교, 힌두교를 인정하고, 이들 종교 축일을 국가공휴일로 기념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 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이슬람인사), "Shalom" (기독교 인사), "Om Swastiastu" (힌두교 인사), "Namo Buddhaya" (불교 인사), "Salam Kebajikan" (유교 인사)" 등 각 종교의 인사말을 2~3개 섞어서 대중연설을 시작한다.

비평가들은 "종교분쟁은 종교가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2000년대 아체에서는 강성 이슬람과 온건 이슬람 주민 간 충돌, 암본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 주민 간 유혈충돌이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너무 달라서라지만 이슬람끼리도 온건과 강성으로 나뉘어 충돌한다고?'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 언론 기사와 책을 찾아보고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주민과 이주민 집단과의 충돌이라는 것. 표면에 드러난 것은 종교지만 실제로 교리 싸움은 아니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거나 이주시킨 이슬람 또는 온건 이슬람 성향 주민들과 원주민인 기독교 또는 강성 이슬람 성향 주민들이 정치와 경제적 이익을 두고 경쟁하다가 충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모든 나라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당은 한국 기준으로 하면 보수 성향에 가깝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집권한 후 정당을 직능 대표자들로 구성한 집권당 골카르당, 이슬람세력을 모은 연합개발당(PPP), 기타 이념과 종교 세력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모은 민주당(PDI. 현 투쟁민주당 PDIP)로 나눴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아닌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비이슬람(민족주의)으로 나뉘는 것. 수하르토 대통령이 물러나고 개혁 시대에 접어들면서, 골까르당과 연합개발당은 인물 중심의 여러 정당으로 갈라졌다. 한편 투쟁민주당은 수많은 성향의 집단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총재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돈이 있어도 바나나를 마음껏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 1990년대 말 파푸아에서는 바나나가 귀했다. 파푸아는 토양이 척박하고 농사가 막 시작된 상황이어서 바나나와 파파야 같은 열대과일조차 귀했다. 도시처럼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바나나와 파파야를 먹으려면 재배하거나 타지역에서 재배한 것을 사와야(유통) 한다는 것. 당시에 한국은 농사도 유통도 발달해서 어디서나 비용을 지불하면 사과와 배를 마음껏 살 수 있었으므로, 도시 소비자 눈에는 농사도 유통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국가가 한국과 같은 단계로 발전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전국에 유선전화망이 설치되기 전에 무선전화로 이동했다. 자기 집 전화번호를 가져보지 못하고 개개인이 핸드폰번호를 갖게 된 것이다. 인터넷도 유선망이 도시를 중심으로 깔리다가 이동통신으로 넘어갔고, 이제 오지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가 운용하는 미국의 저궤도 우주인터넷 통신사업인 스타링크 도입을 언급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통신발달사에는 시티폰과 삐삐 시대가 없다. 철도와 도로가 전국에 건설되지 못한 상태에서 항공편으로 군도의 섬들을 연결하고 있다. 한국은 농업과 광업 등 1차 산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 산업, 4차 디지털 산업 등으로 단계별로 산업이 발전했지만, 인도네시아는 1, 2, 3, 4차 산업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국가에 살아도 언어와 문화, 종족과 인종이 다를 수 있다. 1990년대 말 한국은 한민족이 한국어를 하며 한반도에 사는 나라였다. 서울에서 외모가 다른 외국인을 보면 쳐다보던 시절이었다. 인도네시아에 오니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하지만 종족이 다르면 외모도 언어도 달랐다. 심지어 자카르타에는 전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오가고, 도로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부터 1990년 최신 모델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자동차 모델이 모두 달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바어나 순다어 같은 종족어를 쓰고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다. 당시에 저녁 6시에는 모든 채널에서 국영방송국이 제작한 동일한 뉴스를 방송했는데, 각 종족을 대표하는 아나운서 즉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표준 억양과 발음의 인도네시아어로 뉴스를 전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들을 보면서 머리를 도끼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도끼로 머리를 맞으면 아프고 상처가 남지만 허물어진 경계를 넘는 새로운 생각의 촉수도 생겨난다. 이를 통해 내 나날의 삶과 사고가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끝]

2024년도 재인도네시아 교민배드민턴 대회

종 목	일 정	장 소
남 복 (A,B,C,D) 여 복 (A,B,C,D)	참가신청 8월 3일(토) 17시 까지 경기일자 8월 17일(토) 9시 ~ 14시	CANDRA WIJAYA INTERNATIONAL BADMINTON CENTRE (Tangerang Selatan)

*** 2024년도 재인도네시아 교민배드민턴 대회 / 참가자격 및 경기방식**

1)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 / 교포 (연령 제한 없음)
2) 출전 참가비 : Rp 150,000 / 인
3) 각 조별 우승, 준우승팀 시상 및 상품수여

예선전 : 각 종목 및 급수별 풀리그 진행
결승전 : 각 조별 1,2등팀 선발 후 토너먼트 진행 | 우승, 준우승 시상

대회 참가신청 :
재인도네시아 배드민턴협회
사무총장 남창우 부회장 (0815 1400 4933)

Scan QR Code

CANDRA WIJAYA INTERNATIONAL BADMINTON CENTRE (Tangerang Selatan)

주최 | 재인도네시아 대한배드민턴협회

후원 |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2024 이달의 시사상식

1.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앞으로는 편의점이나 은행, 관공서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 내 QR코드 스캔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3.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배출되어야 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할 때는 최대한 재활용하자는 움직임이다.

‘쓰레기 배출을 제로화하자’는 제로 웨이스트 움직임은 기존에는 다소 불분명한 캠페인성 움직임이었다면, 앞으로는 분명한 정책으로 만들어지며 필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하베르에서 유래한 말로, 친구들끼리 짝을 이루어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통해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이다.

‘질문에서 답을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브루타는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며 논쟁과 소통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답’만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과는 달리 어떠한 지식을 다각적으로 이해해 나가며 해답을 찾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5. 차일드 페널티

‘차일드 페널티’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겪게 되는 경력 단절, 소득 감소, 승진 기회 상실 등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용어다. 이 현상은 출산율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감소, 성별 임금 격차 확대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6. 로봇 주무관

‘로봇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구미시가 도입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로봇이다. 로봇 주무관은 공무원증을 부착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청사 본관 1층에서 4층까지의 우편물과 행정 서류 등을 배달했고, 몸체에 달린 LCD 화면으로 다양한 시청 소식을 시청 방문객들에게 전했다.

7. 타이파 세대

타이파(タイパ)는 ‘시간의 성과’(time performance)를 뜻하는 일본 내 신조어로, ‘시심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빠른 기술 발달 속에 시간 대비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고방식 강해진 일본의 MZ세대를 중심으로 함양된 소비 형태를 가리킨다. 실생활에서 ‘짧은 시간 시청했는데 재미가 크거나 마음에 남는 것이 많을 경우’를 일컬어 ‘타이파가 좋다’고 표현한다.

8.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이 가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제롬 프랭크 판사가 해일런(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했다.

9. 인텔리폰

'인텔리폰'이란 intelligence(지능)과 'phone(전화기)' 또는 '아이폰(애플의 스마트폰)'을 합친 용어로 쉽게 AI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라 이해하면 된다. 인테리폰이라는 확고한 개념은 얼마전 애플이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통해 확산하고 있으며, 향후 이 시장은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예상된다.

10. 로스 리더 마케팅

'로스 리더 마케팅'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대폭 낮춰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통해 고객을 끌어모아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내는 전략이다. 일반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이 바로 로스 리더 상품이다. 이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이라고도 한다.

11. 카니보어 다이어트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오로지 육류와 동물성 식품(계란, 생선 등)만을 먹는 식이요법을 말한다. 쉽게 채식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카니보어 다이어트 식단에서는 야채 · 과일 · 곡물 등 식물성 식품 섭취가 금지된다. 육류 섭취도 아무 것이나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적색육' '붉은 살코기' 섭취가 권장된다.

1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 검사 · 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 · 조치권한을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시행되었다.

13. 토스트아웃

'토스트아웃'은 토스트를 오래 구워 까맣게 타기 직전 상태를 비유한 말로, 피로와 무기력에 빠진 상황을 뜻하는 신조어다. 이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증,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인 '번아웃(burn-out)'에서 파생된 말이다. 토스트처럼 다 타버리진 않았지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것 같은 상태에 비유한 표현이다.

14. 심리적 가시성

심리적 가시성이란, 내면에 있는 마음을 상대가 마치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공감 말하기' '공감 표현하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상대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공감하며 "아 그랬구나" "나도 미안하고 사랑해" 등의 말처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해 보이듯이 나의 마음도 표현해 주는 것이 기본적 심리적 가시성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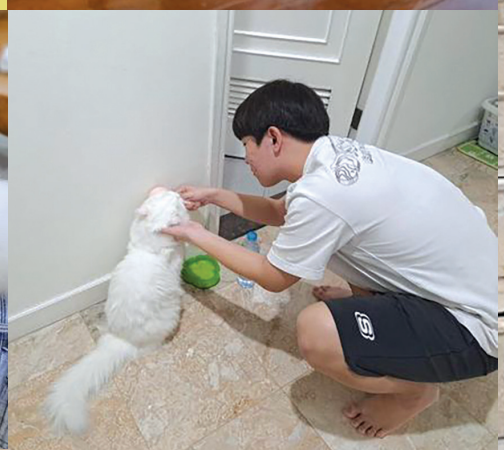
15. 타다

타다(TADA)는 콜택시 개념의 이동 수단 서비스로 다인승 밴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과 짐이 많은 경우 이용하기 적합하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가 운행하고 있으며 '타다' 앱을 설치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에는 목적지 입력 후 예상금액을 확인하고 호출해 탑승하면 된다.

[출처: 카드로 보는 시사상식]

재휘네 집에 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 이름 : 송이
- 나이 : 2살
- 견종 : 터키시앙고라
- 성격 :겁이 많고, 새로운 동물 있으면 예민해서 구석에서 안 나옴. (전적이 있음 그래서 방광염걸림) 집사는 송이만 평생바라기 해야 함 ㅎㅎ 다른 고양이 입양 안 됨!
- 애기들 자랑: 시크하지만 사랑스럽고 본인이 배고플 때는 눈이 동그랗게 뜨고 배부르고 졸리면 세상 귀찮은 표정으로 바라봄
- 집사 : 이재휘 (JIKS 3학년)
  이재진 (JIKS 12학년)



-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애완묘를 키운다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막둥이 재휘가 길고양이를 너무 만지고 다녀서 소중하고 예쁜 송이를 생후 두 달째 되던 송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눈송이인지 꽃송이인지, 재휘가 직접 이름을 지었어요. 가족 모두 처음 키워보는 애완가족이라 신경 많이 쓰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서로 안아주고 송이에게 코뽀뽀를 해달라 졸라요. 짧은 기간 송이와 함께하고 한국 가는 큰형도 송이를 엄청 이뻐해요. 송이 덕에 스트레스 없이 수험생 기간 잘 보낸 것 같아요. 아빠는 원래 동물을 안 좋아해서 어린 송이가 달려들어도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던 사람이 점점 '송이바보'가 되어가네요. 아빠의 근엄함은 어디로 갔는지. (웃음)

배고플 때 "송이, 마우?" 하면 "마우~" 라고 답하는 송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할 '우리 집 최고의 막둥이' 송이. 아침만 되면 엄마가 하루에 한 번 간식 주고 출근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앙! 앙! 강아지처럼 빨리 간식 달라고 애교 발사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고마워, 송이야♥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8)

6)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국인 조직, 재자바조선인민회

종전 후 전범 처리나 귀국선 탑승을 기다리며 자카르타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약 1,600명에 달했다. 그들은 일본군과 분리해서 귀국할 때까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선인 공동체를 만들었다. 한국은 광복 후 혼란에 휩싸이면서 일본과 달리 귀국선을 보낼 여력이 없었고, 진짜 전범인 일본인과 조선인을 분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빠른 귀국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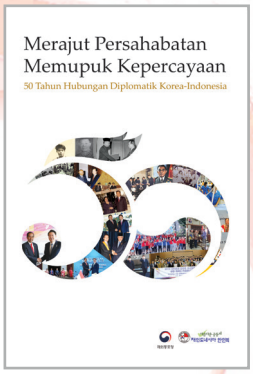
이에 조선인들은 인도네시아 각지에 재자바조선인민회를 시작으로 팔렘방조선인회, 반둥조선인회, 스마랑조선인회 등 지역명을 딴 조선인(혹은 고려인)민회를 결성했다. 민회는 일본군이나 연합군과 교섭을 통해 식량과 물자 확보, 조직원에게 숙소 제공, 명부 작성, 귀환 준비 등 생존을 위한 활동과 함께 태극기 게양, 태극기를 그리기, 한글과 한국 노래를 배우기 그리고 한국 춤 · 음악 · 연극 등을 공연하며 조선인의 정체성을 찾는 활동을 펼쳤다.

사진 1945.12.16. 재자바 조선인민회 반둥지부.사진 [안승갑 회고록]

가장 먼저 설립된 재자바조선인민회(이하, 민회)는 1945년 9월 1일 설립돼 구성원들이 모두 귀국선을 타게 되면서 1946년 4월 13일 해산한다. 자카르타 꼬따(Kota) 지역에 본부를 두고 빠사르 스넨(Pasar Senen) 주택가에 주택을 수십 채 임차하여 극장, 회관, 숙소로 사용하였다. 본부에는 중경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보낸 태극기를 게양했다. 민회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회원들에게도 숙소를 제공하고 집단생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군과 교섭하여 넉넉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물자와 자금을 확보한다. 조선어 교실을 개설해 귀국을 앞둔 동포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재봉틀도 비치해 여성들에게 양재기술을 가르치는 등 귀국 준비를 시켰다. 또한 『조선인 민보』라고 하는 기관지를 등사판으로 인쇄해 매주 배포했으며 100호까지 발행했다고 한다.

7)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 싸운 조선인들

일본이 패전한 후 네덜란드가 다시 일본을 점령하자, 수카르노 대통령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신생 정부는 350년 만에 찾아온 독립의 기회를 사수하기 위해 다시 네덜란드와 4년간 '독립전쟁'을 벌였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차선책으로 게릴라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외교전을 선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이를 위해 민병대 창설을 독려하고, 훈련된 전투원과 무기를 확보를 위해 일본군 출신 하사관과 사병들을 용병으로 중용했다. 이 과정에 조선인 35명가량이 인도네시아 '독립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사진. 양칠성의 묘비, 오른쪽은 빵에란 빠빡 부대 활동 당시 모습 [출처: 책 적도에 묻히다에서 캡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참전한 조선인 중 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양칠성, 정수호, 국재만 등이다. 이들 세 사람은 서부자바 가룻 지역에서 활동한 민병대 빵에란 빠빡(Pangeran Papak) 부대에 자원한다. 이들이 민병대에 가입한 시점은 1946년으로 추정된다. 당시 '빵에란 빠빡 부대'에는 조선인 4~5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칠성, 인도네시아 독립영웅

양칠성(1915~1949)은 인도네시아 외국인 독립영웅으로, 인도네시아 이름은 꼬마루딘(Komarudin)이다. 양칠성은 일본군 군속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파견돼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는 일을 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뒤에 양칠성은 귀국하지 않고 한국인 동료 8명과 함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뛰어들었다. 1946년 양칠성은 200~300명 규모의 '빵에란 빠빡 부대'에서 행동조의 팀장으로 활약했다. 반둥, 우중버뚱, 발레인더, 갈룽궁 산속 게릴라본부 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활약했다. 반둥과 족자카르타를 잇는 철도와 도로를 공격하고, 다량의 무기를 탈취했다. 네덜란드 군의 포위를 저지하기 위해 찌마눅(Cimanuk) 다리를 파괴했을 정도로 폭파 전문가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군은 1948년 11월 기습적인 소탕작전을 벌여 양칠성과 아오키, 하세가와, 부대장 친척 주아나(Juana)를 생포한다. 이듬해 8월 10일(5월 말 설도 있다) 양칠성은 일본인 동료 두 명과 함께 가룻 시내 공동묘지에서 공개 총살된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마나도 출신 여성 린체(Lience Wenas)를 만나서 에디 자완(Eddy Jawan)이라는 아들을 두었다.

1975년 다후란 등 '빵에란 빠빡 부대' 동료였던 인도네시아인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식 청원하면서 양칠성과 아오키, 하세가와 등 3인은 처형 26년 만에 '외국인 독립 영웅'으로 추서되고, 서부자바주 가룻 독립영웅묘지에 안장된다. 당시 이 행사에 참석했던 우쓰미 아이코(內海愛子) 게이센여학원대 명예교수 부부가, 유족이 없고 일본 이름치곤 이상한 한 사람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양칠성이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1995년에는 한국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묘비명이 일본인 '야나가와 시치세이(梁川七星)'에서 'KOMARUDIN, YANG CHIL-SUNG, 양칠성 대한민국'으로 바뀐다.

2023년 11월 10일 서부자바주 가룻군은 인도네시아 영웅의 날을 맞아서 찌삐쭝 마을의 한 도로에 양칠성의 이름을 딴 '잘란 코마루딘(양칠성)'을 명명했다. 찌삐쭝 마을은 팡에란 파팍 유격대의 기지가 있던 곳이다.

8) 인도네시아에 남은 조선인들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인도네시아로 온 조선인 중 소수는 귀국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남는다. 영화감독 허영은 족자로 망명한 수카르노 정부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독립 후에는 우스마르 이스마일 영화감독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다. 반둥포로수용소에서 근무하던 김만수·조남훈 등은 일제에 대한 간접 저항의 하나로 포로들의 외부연락을 담당하였으며, 음식을 제공하여 영양실조에 걸린 네덜란드인 포로들을 도와주었다. 당시 수까미스낀 수용소에서 김만수와 같이 근무했던 한국인 동료로는 유홍배·이병용 등이 있었다. 김만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하여 자카르타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한다.

그는 196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총영사관 개설에 일익을 담당할 만큼 초창기 이곳 한인사회 형성에 공헌하였다. 유홍배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하여 1970년대 초에 자카르타에서 사망하였다. 이병용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해 동부자바 주도인 수라바야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허영, 인도네시아 독립영웅과 친일 매국노 사이를 오간 조선인 영화감독

허영(1908-1952)은 '독립 인도네시아'를 꿈꿨던 한국인 영화감독으로 일본식 이름은 히나츠 에이타로(日夏英太郎), 인도네시아 이름은 후융이다. 1948년 허영은 네덜란드에 맞선 인도네시아의 독립투쟁을 그린 영화 '프리에다(Frieda)'를 제작해 국민 감독의 반열에 오르고, 영화 불모지나 다름없던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선구자가 됐다.

일제 패망 이후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귀환하였지만 허영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단념하고 인도네시아 독립투쟁에 참여한다. 1946년 식민종주국이던 네덜란드가 영유권을 내세우며 인도네시아를 침략하자, 인도네시아 영화공사(BFI) 관계자들과 함께 족자카르타로 가서 수카르노 망명정부에 합류한다. 허영은 '총 대신 카메라'를 들고 전선을 누비며 항쟁의 역사를 뉴스와 기록영상으로 담아냈고 한편으론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허영은 당시 일본 군정감부 선전부 소속 인도네시아인 직원이었던 우스마르 이스마일(Usmar Ismail), 자야꾸스마(Djajakusma), 수르요수만또(Surjosumanto) 등에게 영화와 연극에 대해 가르쳤다. 1947년 12월 2일 딴중쁘리옥 항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휴전 협정 조인식의 기록사진을 찍은 사람도 허영이다.

사진 허영 [출처: Id Film Center]

1949년 독립전쟁이 종식된 후 허영은 자카르타로 돌아와 영화제작사 '키노 드라마 아틀리에'를 설립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레스토랑의 꽃>, <스포츠 하는 여자> 등 인도네시아 영화를 제작, 감독했다. 이 중에서도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인도네시아 영화 최초로 키스신을 선보여서 사회 전반에 뜨거운 찬반 논쟁을 야기했다.

허영은 일제 말기 조선에서 총독부의 국책 영화 <너와 나>(1941)를 찍으면서 맹렬한 친일영화인으로 활동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이다. 인도네시아에 건너가서는 일본군 휘하의 포로수용소에서 살아가는 호주군 포로들이 호화로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처럼 보여주는 <콜링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선전영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실

제로 호주군 포로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고, 포로들의 실상을 '조작'한 이 영화는 종전 후 열린 도쿄 전범재판에서 되레 포로 학대를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된다.

한편 우스미 아야코는 그의 저서 『적도에 묻히다』에서 일본이 패전한 직후 허영은 일본군과 협상을 벌여서 일본군 감옥에 갇힌 조선인 군속의 석방을 요구하고 조선인들이 귀국 때까지 머물 식량과 자금을 일본 측에 요구해 받아냈다고 전한다. 허영은 인도네시아에서 마나도 출신 여성 안나 마리아(Anna Maria Karuntu)와 결혼해 딸을 두었고, 1952년 2월 9일 자카르타에서 사망해 뻐땀부란 공동묘지에 묻혔다.

김만수, 네덜란드의 은인

김만수는 서부자바주 반둥 근교 수까미스낀(Sukamiskin) 지역 포로수용소에서 포로감시원으로 일했다. 그와 동료인 조남훈 등은 네덜란드 포로들에게 지정된 음식 외에 물품을 공급해 주고 비밀리에 바깥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므로, 김만수는 항상 자결용 권총을 휴대했다고 한다. 네덜란드인들은 김만수와 그의 동료들의 인도주의적 배려 덕분에 생명을 건졌고, 그들을 네덜란드의 은인」이라 불렀다. 종전 후에 포로수용소에 수용됐던 네덜란드인 칸나백(Kannabeg) 백작은 김만수의 이런 활동을 증언했고, 네덜란드 정부는 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만수는 1947년 한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1955년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여성과 재혼한다. 1973년 한국 기업인 미원 인도네시아가 진출하자, 그는 그의 아내를 내세워 현지 파트너가 된다.

1962년 아시안게임이 자카르타에서 열리자, 포로감시원 시절 동료인 유형배와 함께 한국 선수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지원한다. 동아일보 특파원은 1962년 9월 2일자 기사에 두 사람의 적극적인 봉사 이야기를 소개했다. 1966년 12월 1일 주인도네시아 한국영사관이 개설될 때, 김만수는 교민 대표로 참석해 태극기를 게양한다. 그는 한인사회 형성기에 인도네시아를 드나드는 많은 한국 사업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한인사회의 맏형' 역을 자처했다. 그는 1975년 자카르타에서 사망한다.

유형배, 최초의 메리야스공장 설립

유형배는 김만수와 함께 반둥 지역 수까미스낀 수용소에서 포로감시원으로 일했다. 그는 동료 7명과 함께 서부자바 지역에서 독립전쟁에도 참여했다. 유형배는 1946년 4월경에 귀국선을 타기 위해 자카르타 딴중쁘리옥 항구에 갔다가 체포되어, 전범 조사를 받기 위해 임시수용소에 수감되고, 이후 글로독 형무소로 이감된다. 1946년 4월 무렵, 적십자 봉사요원이었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여성 우이 마리아(Oey Maria)의 도움을 받아서 석방된다. 후일 유형배는 우이의 딸인 스리 뿌르나마와띠(Sri Purnamawati)와 결혼해 5남 1녀를 둔다.

1951년 유형배 부부는 자카르타 북부 안쫄 지역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메리야스 공장인 글로리아사(PT. Gloria)를 설립한다. 당시 적십자 활동을 하며 대통령 영부인 파뜨마와띠를 비롯한 고위층 부인들과 교분을 가지고 있던 우이가 그의 사업을 지원했다. 1954년 유형배는 자카르타 뜨붓 지역에 두번째 사업체인 트리코트를 생산하는 회사 뻐르소조(PT. Persodjo)를 설립해 종업원 수 1,500명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키운다.

1961년 8월 9일 유형배는 자카르타 특별법원에서 정식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다. 북한 출신인 유형배는 수카르노 정권의 2인자였던 수반드리고 외무상의 평양 방문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대일 청구권 자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면서 일본과 경제교류가 활발해지자 일본을 자주 왕래하며 사업을 키운다. 유형배는 1967년 이슬람 신자가 되고, 이후 이슬람학교 설립 자금을 후원하는 등 인도네시아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노력했다.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2)

(전호에서 계속)

6. 특수한 불법 행위

인도네시아 민법은 본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특수한 관계 혹은 상황에서 간접적인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가.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불법행위

금치산자의 법정 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 보호자(부모 혹은 친권자), 미성년자학교의 학교장, 아동 복지 시설의 책임자, 유아원장, 정신병원장 등 법적 책임 무능력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휘하의 책임 무능력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책임의 범위는 가해 행위가 아니고 감독에 관한 점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그러므로 자기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

회사의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가 있으면 형사책임은 직원에게 있으나 손해를 입은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사용자인 회사에게 있다. 회사의 직원이나 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혹은 가정부가 임무 수행 중에 제 삼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회사의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운전 중에 사람을 치면, 운전기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 민사책임 측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용자인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가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가축의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개가 주인집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개가 동물병원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동물병원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라. 시설물 점유주 및 소유주의 불법행위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건물 주인은 다친 사람에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로 수년전에 보고르 지역에 있는 한 회사의 공장 축대가 장마로 무너지면서 행인을 치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축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 불법행위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되여 곤란을 겪었고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

마.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1) 회사 이사회원의 불법행위

이사회원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회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성실 및 주의원칙을 준수하여 회사를 경영해야하며, 매년 경영 결과를 연례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년 경영계획을 세워 연례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경영을 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성실 의무 혹은 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를 불성실하게 경영하거나, 연례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경영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신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예” 를 들면 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에게 민법 제1365 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 차명사업자의 불법행위

외국인에게 투자를 불허하는 업종 혹은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혹은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법정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차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예” 를 들면 채권자, 거래처, 직원 등)에게 차명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차명사업은 시재 주인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설정이 필수이다)

(3)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에 하나가 위임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이다. 위임 관계는 법에서는 계약의 관계로 본다. 즉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혹은 어떠한 권리를 주는 위임장을 주면,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본인들이 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양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여시킨다. 피위임자의 의무는, ⅰ) 위임받은 사항을 최선을 다 해서 위임자의 유익을 위해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ii)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는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이다. 위임장 내용 중에 위임자가 위임에 관련하여 피위임자에게 여하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 피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결과를 위임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자에게 위임받은 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피위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위임자에게 피위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2024 임원회비 납부명단

기준 : 2024.1.1 ~ 2024.7.29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JAVA PALACE HOTEL	20,000	
2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0	
3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0,000	
4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5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6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7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URNIA	5,000	
8	부회장	김창곤	KODECO ENERGY CO LTD	5,000	
9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10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1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2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5,000	
13	부회장	이우열	PT. BANK BUKOPIN TBK	5,000	
14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15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16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17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8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19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20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21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22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23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1,000	
24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25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1,000	
26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27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28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LIM CHEMICAL	1,000	
29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1,000	
30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31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1,000	
32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33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34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35	이사	강수한	PT. CHAEUM DESIGN	1,000	
36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37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1,000	
38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39	이 사	김일태	PT. OROM	1,000	
40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41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42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3	이사	남궁훈	PT. HANWA LIFE INSURANCE INDONESIA	1,000	
44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45	이사	박영진	PT. JUBIT CONSULTING INDONESIA	1,000	
46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47	이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48	이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000	
49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50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51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52	이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000	
53	이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000	
54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55	이사	이성삼	PT. LSS (LIGA SEJATI SEJATRA)	1,000	
56	이사	이승수	PT. SINYOUNG ABADI	1,000	
57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58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1,000	
59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000	
60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61	이사	장영관	PT. LAYCO	1,000	
62	이사	정상봉	PT. DAESANG INGREDIENTS INDONESIA	1,000	
63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64	이사	조용재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65	이사	최재희	PT. STONE CANYON INDONESIA	1,000	
66	이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000	
67	이사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	
68	이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000	

2024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부순

번호	성 명	금액(IDR)
1	최석일	300,000
2	NO NAME	300,000
3	채만용	300,000
4	김영경	1,000,000
5	NO NAME	500,000
6	정순	300,000
7	김규리	300,000
8	김경희	300,000
9	사공경	300,000
10	엄강심	300,000
11	김희순	300,000
12	석웅치	300,000
13	안진호	300,000

번호	성 명	금액(IDR)
14	정사무엘	300,000
15	최혜진	300,000
16	김대근	300,000
17	김창근	300,000
18	김성구	300,000
19	김태원	300,000
20	이상일	300,000
21	최인실	300,000
22	홍석영	300,000
23	이은진	300,000
24	NO NAME	500,000
25	이순형	600,000

번호	성 명	금액(IDR)
26	NO NAME	500,000
27	NO NAME	500,000
28	오세명	300,000
29	이송용	300,000
30	이현용	300,000
31	김혜아	300,000
32	차신우	300,000
33	NO NAME	500,000
34	NO NAME	500,000
35	김윤진	300,000
36	차윤재	300,000
37	이지선	500,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범죄 및 도난 신고	POLICE (Polisi)	112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SMS 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KAI 121.....081111 2111 121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대사관 발리분관(당직폰).....0811 3831 3659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날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88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가구

죠지언 퍼니쳐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뽄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둥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퐁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뽄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끄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쯤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뽄독삐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식당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가효(MOI) 0811 9966 677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용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 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찔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옥) 0811-951-762

반 둥

반둥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둥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둥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둥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깔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헌) 62-8115400-863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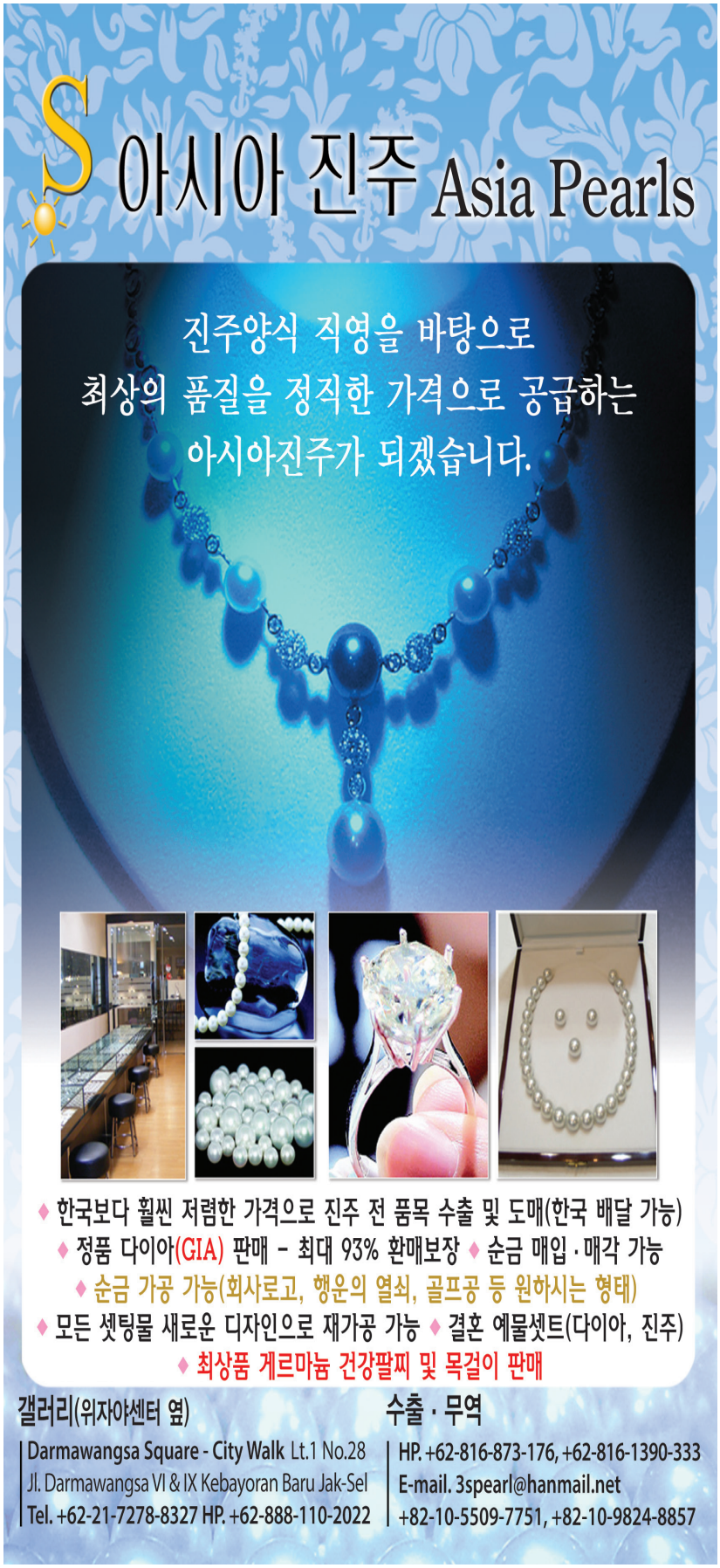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복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숭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혜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헌)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10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헌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www.sticorp.co.kr

STI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I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